

혁신·개방·세대교체 4대 그룹 인사 키워드

젊은총수 시대 'OB 퇴조·해외 수혈'
삼성, 조직안정·파격 인사 조화
현대차, 세대교체·조직 슬림화 초점

재계 3·4세 총수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연말 인사 키워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이현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이견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 회장 시대도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올해 4대 그룹 인사 트렌드는 선대 회장 시대 경영진의 퇴조와 유학파 총수들의 개방형 인재 채용이 될 것으로 재계는 예측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와 GS 등 주요 그룹들이 사상단 인사를 앞당기고 있다. 4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의 인사 시기와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 재판 등의 변수로 조직 안정감 유지와 신상필벌을 고려한 파격적 인사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도 연말 인사가 예고돼 있다. 10월 정 회장이 공식 그룹 총수에 오른 지 2개월여 만에 추진되는 만큼 사실상의 정이현 1기 인사가 된다. 2018년 9월 당시 40대였던 정 수석부회장이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그룹의 체질이 빠르게 변화했다. 이번 인사 역시 새 총수에 맞춰 세대교체와 조직의 슬림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그룹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12월 경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

주요 그룹 2020년 임원 인사 키워드

- 삼성** 막 내린 이견희 시대
삼성전자 DS·IM·CE 부문장 유지 관심 (파기환송심 진행 중)
- 현대차** 정이현 체제 본격화
OB(부회장단) 및 1960년대생 임원 퇴진, 세대 교체 및 순혈주의 타파
- SK** 안정세 지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초, 핵심 계열사 수장 연임
- LG** 3년 차 맞는 구광모 체제
안정화 속 분야별 최고 책임자 유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로

고 지난해 이미 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과 주요 관계사의 부문장급 임원들이 대폭 교체된 만큼 대규모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SK그룹이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DT) 등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모델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과감한 인재 발탁과 예상보다 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그룹은 예년과 같이 이달 말 정기 인사 발표가 유력하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사가 12월 1일로 예정돼 있어 다른 계열사와 별개로 인사가 날 수도 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의 공통점이 미국 유학파라는 점에서 정기 인사 외에도 해외 인재 수시채용이 큰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그룹은 선대회장과 함께했던 OB(Old Boy)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신사업에 필요한 해외 고위 임원들을 채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상시 인사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서 유영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日·아세안 '22억 시장' 수출장벽 낮아진다

文대통령,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인도는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관련기사 5면 RCEP 정상회의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에선 협정문 타결만 선언, 시장개방 협상은 이루지 못했다. 올해는 시장개방 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인도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참석해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

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살아나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RCEP는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상회의 폐회 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서는 아세안 10개국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서명한 후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15일 RCEP 서명에는 인도가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 우려로 불참해 15개국이 참가했다.

했다. 15개국 중 14번째인 우리나라는 유영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문 대통령 자리에서 서명했다.

RCEP 협정 참가국의 인구는 22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 규모, 총생산(명목 GDP)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정일환 기자 whan@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낮춘다

당정, 3~4%p 인하 추진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급격한 인화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등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화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백서·흑서 갈린 '조국 여론재판'

스페셜 리포트

'여론 재판'이 대한민국을 돌로 쪼갰다. 국민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넣어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전형적 여론 재판의 폐해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4면

15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검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

일가친척 의혹 등 네 갈래로 재판 선고 해 넘길 듯...국민 갈등 장기화 '특권층 특권의식' 논란 뜨거워 감자

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접근이 겹치는 부분의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는 재판이 장기화할수록 국민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돌로 갈라졌다.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선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와 이를 반박하는 '조국 흑서'가 갈간되는 등 국민 분열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법부가 내린 결론조차 의심하게 하는 '선

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여론 재판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보와 보수는 진영 논리대로 결론을 내리고, 팽팽히 맞서면서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많았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범동 씨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곧(정 교수) 판결도 나올 텐데 음모론을 앞세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다든지 직접적 위협을 가해 여론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간섭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서울~울릉' 비행기로 1시간... 2025년 하늘길 열린다

울릉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달 착공

2025년이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급성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사동항 인근에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5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해 2019년 12월 대립산업권소사업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후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릉공항은 1980년대부터 수차례 추진됐으나 기존에는 공사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 필요로 경제성이 적어 실현되지 못했고

사동항 1200m급 활주로 건설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취항 편도 항공 요금 9만원 내외 전망 소요시간 6시간 단축 관광 활성화

설계를 바꾸는 진통이 이어졌다. 정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울릉공항을 △계기정밀절차 운영과 결항률 최소화로 안전한 공항 △민·관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공항 △250년 빈도 이상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구조물 내 구성과 기초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으로 건설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 지역을 육지와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 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섬 지역 소형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추진해왔다. 도서 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50인승 항공기 등 소형

항공산업 활성화 유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을 찾는 관광객이 단기적으로 연간 40만 명, 장기적으로 1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은 편도 9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good@

수능 1주 전 학원 대면수업 자제... '격리 수험생' 754개 시험실 운영

19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주일간 '특별 방역기간'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자기격리 수험생들을 고려해 각각 병상 120여 개와 754개의 시험실도 확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출입 시설 방역 강화 = 정부는 수능 시험 2주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과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확진자 발생 학원 명칭·경로 공개 PC방·노래방 등 방역관리 강화

대한 방역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능 1주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한 대면 교습 자제와 수험생에게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와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개한다.

특히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PC방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한다.

확진·격리 수험생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 날인 4일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 지원 = 수능 시험의 중요도를 고려해 격리자·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수능 응시 기회도 보호된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총 29개소 시설과 120여 개의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섭외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 3주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을 거점 시설에 배정했다. 교육부는 수능 1주일 전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정부는 전국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한다. 총 113개 시험장과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시험장을 설치하며 수험생 중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꾸려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하게 된다"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나 별도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또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사운영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등교·원격수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능 이후 학사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한 상태에서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 장기간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와 대학별 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기간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수능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희망은 ON!

정부는 NO,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코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회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코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서울회생법원 | 금융위원회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이재용號 '3K체제' 유지 속 핵심직책 '젊은 피' 쇄신

재계 세대교체 관전 포인트

올해 재계 인사의 핵심은 젊은 유학파 총수의 '인재채용 유연성'이다. 세대교체가 확정된 만큼 'OB(올드보이)'들의 일선 후퇴, 외국계 임원의 적극적 영입도 점쳐진다.

15일 재계 고위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 시에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며 "다만 젊은 총수들의 과감한 성향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등을 고려하면 대대적 쇄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고(故) 이근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이후 6년 이상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왔다. 삼성 계열사 고위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립들로 거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등 삼성전자 3인 대표이사 체제도 내년에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3인방이 각각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소비자가전(CE) 부문, IT·모바일(IM) 부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냈다. 무리하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세대교체를 준비할 것이라 예상된다.

삼성은 올 초 사장단 인사 및 조직 개편에서 3인 대표가 겸임하던 주요 직책을 하나씩 후임에게 넘기며 점진적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 50대 초반의 노태문 사장이 고동진 사장의 배턴을 넘겨받아 스마트폰 사업 수장에 올랐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인사에선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5G 등 신사업 강화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 거취 촉각 '4인 부회장' 구광모 안정' 택할 듯 '가치경영' 최태원, 대규모 인사 예고

리(집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5G 등 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인재 등용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OB 퇴진을 포함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재 자동차 계열사 부회장으로 노무 담당 윤여철 부회장만 남았다. 그동안 윤 부회장은 존재의 당위성이 뚜렷했다. 그룹 총수 일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노무 분야를 책임져온 덕이다.

정 회장이 최근 노조와 직접 대면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 회장과 노조 면담에도 윤 부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무 담당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윤 부회장의 일선 후퇴를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이밖에 1950년대생 임원들의 퇴진도 점쳐진다. 1960년대생 사장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뒤를 잇는다. 부회장의 책임경영 대신 실제 업무와 명목을 모두 거머쥔 실무형 책임자가 점쳐진다.

현대차그룹 역시 과감한 외부 인재 수혈로 인해 또 한번의 쿼터 점프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날 발레오 출신 부사장을 글로벌OE영업부문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이에 앞서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 출신의 신재원 박사, 삼성전자 출신의 지영조 사장 등도 외국인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과 기업 출신이다. 현대차

주요 그룹 총수 출신학교 및 인재 영입

기업 총수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그룹 정의선	기업 총수
출신학교	서울대, 하버드대(석)		고려대, 샌프란시스코대(석)	출신학교
영입인재	데이브 다스 전무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		카림 하비브 상무 악셀 마슈카 부사장 호세 무노스 사장	영입인재
분야	북미총괄 미국법인 HE Div장 SRA 싱크탱크 팀장 (1982년생 삼성 최연소 상무)		기아차 디자인센터장 글로벌 OE영업부문장 글로벌 전략기획담당	분야
기업 총수	LG전자 구광모		SK그룹 최태원	기업 총수
출신학교	미국 로체스터공대		고려대, 시카고대(석)	출신학교
영입인재	쑤중선 상무		장웨이 상무 에릭 데이비스 전문 임원	영입인재
분야	중국 B2C 회복		중국사업개발 전문 인증지능(S) 개발	분야

그룹 순혈주의는 이미 깨진 셈이다. LG그룹에선 부회장단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LG 부회장단은 차석용 부회장, 권영수 부회장, 하현희 부회장, 신학철 부회장 등 총 4명이다. 그룹 안팎에선 이번 인사에서 LG 부회장단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부분에 무게를 둔다. 구광모 회장의 최측근인 권영수(주)LG 부회장은 입지가 탄탄해 구 회장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 예상은 많지만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계열사 LG전자에서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2017년 말 사장 승진 후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권봉석 사장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LG전자의 호실적을 이끌었다.

SK그룹은 시장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업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승진 명단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6월 이전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0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업 가치 향상'을 올해 그룹 경영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대규모 물갈이와 발탁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이투데이 junior@ 김유진 기자 eugene@

닛산 출신 COO·외국인 女부사장 '현대車' 정의선의 '非순혈 용인술'

2008년 獨 슈라이어 영입 시작으로 R&D에서 경영까지 해외 인재 기용

정의선 회장 체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철옹성 같았던 현대차그룹의 '순혈주의'도 막을 내리고 있다. 디자인과 연구개발(R&D) 부문에 집중했던 외국계 인재 영입은 영업과 브랜드 전략은 물론 경영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출신의 악셀 마슈카(Axel Maschka) 부사장을 글로벌 OE(Original Equipment) 영업부문장으로 영입했다. 영업부문의 외국인 인재 영입은 처음으로, 외국인 임원 가운데 최고위층이다.

독일 출신인 마슈카 부사장은 볼보와 르노의 상용차 합병 과정에 참여하는 등 영업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2016년 북미연구소와 유럽연구소에서 외국계 임원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마슈카 부사장의 영입은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했던 외국인 인재 등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 말, 외국인 임원 영입을 본격화했다. 2008년 기아차 사장이었던 정의선 회장이 독일 폭스바겐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사장(당시 상무)을 영입한 게 출발점이었다. 이후 연구개발본부(앨버트 비어만 사장)와 디자인(루크 동커볼케 사장) 등으로 인재 영입이 확대됐다.

디자인과 연구개발 부문에 국한했던 외국인 인재 영입은 지난해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경영과 마케팅, 브랜드 전략까지 범

위를 확대했다.

현대차는 작년 4월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설했다. 이 자리에는 닛산 전사성과총괄(CPO) 출신인 호세 무노스 사장을 임명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무노스 사장은 북미와 중남미를 총괄하는 미주권역 담당 책임까지 맡고 있다. 현대차는 닛산 출신의 랜디 파커 부사장이 북미 영업부문에 영입했다.

상품기획과 브랜드 전략, 광고부문에 외국계 여성 인재가 속속 합류하고 있다.

현대차 북미 마케팅 책임자 안젤라 제페다를 시작으로 북미 상품기획 및 모빌리티 부문에 올라비시 보일 부사장, 현대차 멕시코 법인장 클라우디아 마르케즈 등이 지난해 합류했다.

현대차그룹의 비(非)순혈주의 인재 경영은 향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9명이었던 등기임원 가운데 외국인은 없었다. 올 6월 기준 11명의 등기임원 가운데 외국인은 2명이다. 연구개발본부의 앨버트 비어만 사장과 유진 오 전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 파트너 등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당하던 과정에서 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외국계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사회 보강 과정, 나아가 경영 분야에서도 외국인의 합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EASYALL

감탄사가 이름이 된카드
KB국민 Easyall카드

준법감시인 심의번호 200724-02427-ADP (2020.09.24 기준)

KB국민카드

정경심 '표창장 위조' 내달 판가름... '사모펀드 공모' 불인정

'조국일가' 재판 팩트 체크
檢 "30초면 위조" 징역 7년 구형
딸 논문 고려대 입수 의혹은 거짓
조권 응동학원 채용비리는 유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국민은 양분됐고, 서울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여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분류를 떠나 '국민 분열'이라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 사건이라는 오명을 썼다. 확정 판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원의 시간을 맞는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사실에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 쟁점을 정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진실은?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두고 '7대 허위 스펙'으로 분류했다.

이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에 알려져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관심만큼이나 해당 의혹은 정 교수 재판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컴퓨터 이용에 미숙한 이른바 '컴맹'이라고 주장했다. 컴맹이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챙겨와 30초 만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검찰의 시연과 정 교수 측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쟁점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변호인: "30초면 만든다" "10단계 거쳐야 해 불가능"

동양대 PC 위법 수집 증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 "임의제출 과정, 전자정보 지연 교부 위법"

조권 1심 유무죄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
강제집행면탈	무죄
배임수재	무죄
업무방해	유죄
증거인멸 교사	무죄
범인도피	무죄

조범동 1심 유무죄 판단

코리크PE 자금 횡령 혐의	일부 유죄 (정경심 공모 부정)
어머니 직원 허위 등재 혐의	유죄
WFM 허위 공시 혐의	유죄
헬스시엔티 자금 횡령 혐의	유죄
IFM 자기자금 인수 허위 보고 혐의	유죄
허위 금전대차계약 등 혐의	유죄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	무죄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	유죄 (정경심 공모 인정)

* 범죄 사실 21개 중 20개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 88억6700만여 원 중 72억2000만여 원 횡령 인정

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딸 조 씨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 고려대 제출 여부는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고려대에서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고려대가 정 교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입시 서류를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 결과 조 전 장관의 말은 사실이 었다.

◇사모펀드 공모 인정 안 해=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은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며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리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조 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리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보내 줬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조권 씨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응동학원 '셀프 소송'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중용 기자 deep@

“편 가르기식 비난, 재판 독립 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회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5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 성향을 보였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편 가르기식의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 독립

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일방적 비난과 신상털기 식 공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운 법무법인 예울 변호사는 "과거엔 합리적 근거를 갖고 목소리들이 나왔으

여론 재판 부작용
관련 검사·판사 신상털기 우려
조국 사건, 특권의식 문제 공론화

나 근래엔 단순히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 개인의 인신공격, 과

거 판결 등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연

구소장이었던 장영표 교수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턴 품앗이 의혹 등도 공분의 대상이 됐다. 이후 관성적으로 이뤄졌던 사회지도층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부모가 개입해 사회적 윤리와 원칙을 어겨 특권을 누리면서 (일부 사건의 경우) 범법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車·철강 등 아세안 진입 문턱 더 낮춰... 日과 첫 FTA 체결

GDP·인구 세계의 30% 차지 무역 5.4조달러 초대형 FTA 아세안 관세 14.7%P 낮아져 신남방 정책 가속도 붙을 듯 인도와는 'CEPA' 개선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최종 서명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열리면서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장벽은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일본과는 첫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은 △무역규모 5조4000억 달러(전 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 26.3조 달러(전 세계 비중 30%) △인구 22억 6000만 명(전 세계 비중 29.9%)에 달하는 초대형 거대 FTA다.

한국의 주요 경제 블록별 수출 규모와 비교하면 지난해 기준 대(對)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수출 규모가 각각 898억 달러, 12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자동차·철강 등 유망 품목 날개 달아 =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품목별

RCEP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 현황 * 관세율, 세부 양허, 단계적 철폐 수준은 국별로 일부 상이
우리의 수출 유망 품목 (아세안 등 RCEP 참여국 시장개방)

자동차	화물자동차(최대 40%), 승용차(최대 30%), 자동차용엔진(10%), 자동차부품(안전벨트 부품)(10%), 자동차부품(에어백)(30%), 자동차부품(휠)(최대 10%) 등
철강	철강제품(농강, 형강)(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
석유화학	합성수지(최대 7%), 플라스틱관(15%), 타이어(10%), 필름류(10%), 기타석유화학제품(5%) 등
기계	블베어링(5%), 기계부품(5%), 섬유기계(10%), 펌프(5%), 경직기계(10%), 건설중장비(15%) 등
전기전자	냉장고(최대 30%), 세탁기(30%), 냉방기(최대 25%) 등
섬유	면사·폴리에스터사(최대 7%), 의류(셔츠, 스커트 등)(30%) 등
생활소비재	세정용품(최대 20%), 의료위생용품(5%), 귀금속·장신구(10%) 등
농산물	사과(5%), 배(5%), 딸기(5%), 녹차(5%), 맥주(15%) 등
수산물	수산물통조림(최대 10%), 가다랑어(냉동)(5%), 김(건조)(5%), 황다랑어(냉동)(5%) 등

국내 소비자 후생 품목 (우리 측 시장개방)

열대과일	두리안(45%, 10년), 파파야(30%, 10년), 구아바(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레몬(30%, 10년) 등
음료	맥주(30%, 15~20년), 파인애플주스(50%, 10년) 등

관세 철폐 수준이 최대 14.7%포인트(P) 높아진다. 이를 통해 나라별로 91.9~94.5%의 관세가 사라진다.

품목별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부품, 철강재용기, 형강, 합성수지, 베어링, 섬유사, 의료위생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필리핀은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아연 도강판, 철강관, 의약품, 베어링, 폴리에스터섬유 등에서, 태국은 자동차부품, 원동기,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섬유기계, 의료위생용품, 세정용품 등에서 관세율이 철폐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만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 일본과의 첫 FTA 체결 = RCEP 최종 서명은 일본과의 첫 FTA 체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 FTA 체결 시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10위 경제대국 중 브라질을 제

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RCEP에서는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이라는 점과 우리 산업의 대일본 민감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다. 수입액으로는 일본은 78%로 우리와 비교해 2%P가량 더 많이 관세를 철폐했다. 공산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 역시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다. 품목 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20년 철폐와 비선형 철폐 품목은 각각 455개, 105개다. 반대로 일본은 2개, 0개다.

◇ 인도 빠져... “투 트랙으로 접근” = 애초 RCEP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대중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택

했다. 인도까지 RCEP에 들어올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RCEP 체제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7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 RCEP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인도는 개방률이 낮고 13억 명의 인구는 농철 수 없는 시장이다.

다만 한국은 인도와 20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한 상태다. 또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선 작업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의 인도 측 양허 수준은 85%로 미국·EU·호주 100%, 캐나다 98%, 터키 91% 등보다 낮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개방 여지가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가 맺은 FTA를 보면 적자가 심해 속도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며 “하지만 인도 적자는 중간재 쪽이며 완제품 수출은 인도 교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으로, 양자·다자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쌀·고추·마늘 등 농산물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최소화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15일 최종 서명에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RCEP) 협상 결과’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RCEP을 통한 양허 품목은 기존 FTA 대비 136개가 추가됐다. 하지만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현재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만큼 농업에 지장이 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와 파파야(30%), 망고스틴(1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반면 우리 농수산물 수출 유망품목은 수출길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RCEP을 통해 시장 접근

성을 개선했다.

또 RCEP에서는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운용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신선 농산물의 경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기로 합의했다.

수산물도 일본산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 수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과 협상은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 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 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 9700만 달러)의 97.9%(2억 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주요 수출품인 가다랑어(냉동)와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생명


DB캐피탈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국내 손해보험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성사까진 '산 넘어 산'

오늘 산업관계장관회의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이 이번 주 초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특허 논란 등은 인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핵심 안건이다.

먼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가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 원 이상·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두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허용할까 =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적·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가격 상승 압력이 상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여부 변수로 시장독점 가격상승 우려시 합병불허 '회생 불능' 판단엔 '허용' 선례 있어 승인엔 산은 '추가혈세 투입' 딜레마

당해될 것으로 판단하면 M&A를 불허한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시장 독점 폐해를 근거로 불허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 금지나 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려야 하는데, 현재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는 나오기 힘든 결론이다.

다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 특허 시비·노조 반발 걸림돌 = 만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이후 정부의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위한 추가 지원은 불가피해진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에 추가 자금 투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수혈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진칼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칼의 주요 주주인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이 현 경영진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까지 얹힐 경우 거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M&A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LCC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확정되면 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자회사 LCC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에 대한 통폐합, 분리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 LCC는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고정비 일부를 해결하고 있는 데다, 에어부산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이 44%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만일 LCC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를 신호탄으로 항공업계 구도 재편 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형 항공사 체제로 개편된 미국과 유럽의 노선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노우리 기자 we1228@

與, 세종에 국회 본회의장 신설·상임위 이전 추진

행정수도완성TF 내주 보고서 발표... 국회 떠난 여의도 금융특구 개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2개의 본회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이러한 구상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

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경우다. 국회도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10억 원으로 제출했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하면서 약 13배인 127억3700만 원을 증액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TF(태스크

포스)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1조426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때는 사업비가 1조7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전 부지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시 S-1생활권 내 50만㎡ 용지를

활용하되 도로로 단절된 약 6만㎡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243실)도 구성된 의원회관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

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주 발표될 보고서에는 '르네상스 서울' 구축 계획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회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알쏭달쏭 환경용어키워드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오담노트 제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김사미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일면 경제가 보인다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기기가 도술선*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하다가 밀려난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화양산보양펜션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기어미 펜션을 짓겠다고 기세를 문우연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실의와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웬일? 펜션 사업이 썩 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심심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땀 지푸라기 천도 총총하게 이으면 세상에 허나쁜 특별한 원인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비느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버려진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땀' 커뮤니티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사 명작 돌아보기 얼얼 없는 거리의 화가, 땀크시 "15억 원짜리 그림이 잘려나간 사연"

다시할 뉴딜 일자리 창출로 마져 양천구를 꿈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해법

세계 7억 인구 중 2분의 1 유망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뭐임? 남자, 조종사 이사의 프리랜서 박

나조차도 감동 못할 거사,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건우 작사가

김해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기적' 강원도 청성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리의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텔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정갈 화단을 단장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다시할 뉴딜 일자리 창출로 마져 양천구를 꿈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해법

세계 7억 인구 중 2분의 1 유망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뭐임? 남자, 조종사 이사의 프리랜서 박

나조차도 감동 못할 거사,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건우 작사가

김해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기적' 강원도 청성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리의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텔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정갈 화단을 단장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심심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땀 지푸라기 천도 총총하게 이으면 세상에 허나쁜 특별한 원인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비느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버려진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땀' 커뮤니티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사 명작 돌아보기 얼얼 없는 거리의 화가, 땀크시 "15억 원짜리 그림이 잘려나간 사연"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Hi Innovation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양정철, 당내주자 힘 싣는 김종인

양, 내년 4월 보선 앞두고 당내 '잠룡' 만나... '원팀' 강조 김 "대선 출마 의사 표시한 유승민·오세훈·원희룡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온 양정철(사진)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뒤 잠행을 이어온 가운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열에 나섰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양정철 전 원장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는 수개월 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대외적으로 '당분간은 무조건 중립'이란 신중론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에서 '원팀' 전략을 강조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전해철·도종환 의원 등 당내 친문 그룹을 주축으로 현역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4.0 연구원' (가칭)에 대한 안팎의 시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친문계가 특정 주



자를 지지하거나 계파 간 갈등이 부각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진영 내에서 여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주자들이 함께 부각돼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양 전 원장의 복안이다.

이율리, 양 전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스스로 일절 합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권 내에선 연말·연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 때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당 전면에 복귀해 내년 재보선 전

력을 짜는 등 책사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도 당내 주자들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당내 대권 주자로 지칭하면서 우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에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지금 세 사람밖에 없다.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언급을 통해 앞으로 잠재적인 보수 대권 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국회의사당 앞에 '희망22' 사무실을 열고 주택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개소식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작을 축하하러 간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범야권 혁신 플랫폼'을 내세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현 정부 사람', '당 밖 정치인'이라고 선그은 바 있다.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과 손잡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주당 한반도TF단 첫 방미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으로 이동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위원장,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예정

'바이든 시대' 한반도정세 첫 시험대... 北 반응에 관심

한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인 3월경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내년 3~4월 중 기존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하는 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가 있지만, 올해 훈련을 코로나19로 못했던 만큼 내년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평소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했던 북한이 이제 막 들어선 바이든 정부를 무력시위를 통해 압박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ICBM 발사 등을 강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고, 바이든 정부가 아예 북한과 대화하려는 생각을 접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탐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 측은 18일(현지시간) 오전 10시에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또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내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

다. 정일환 기자 whan@

'N차 전파' 확산 새 집단감염 잇따라... 전국 유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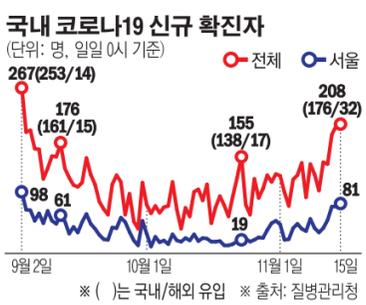
수도권 신규 확진자 124명 ... 강원·충남 등 산발적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개편(7일)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다.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하면 최근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웃돌고 있는 데에는 거리두기 개편 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08명 증가한 2만85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76명, 해외유입은 32명이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기존 감염경로에선 지표환자에서 접촉자, 접촉자의 가족·지인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N차 전파'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해 격리 중이던 6명이 추가 확진돼 누



적 확진자는 65명이 됐다.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선 1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누적 19명)됐다.

강남구 역삼역 관련 확진자도 31명으로 9명 늘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기관과 관련해선도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159명이다.

이날 수도권 전체(0시 기준)의 신규확진

환자는 124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치인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해 8명(누적 29명),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9명(16명), 충남 아산시 직장모임과 관련해 14명(누적 49명), 전남 광양시 기업과 관련해 6명(누적 25명)이 신규 확진됐다.

신규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선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충남 서산시 군부대와 관련해선 11월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광주 대학병원과 관련해선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진 5명 등 총 8명이 확진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 단위로 유행이 번지는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8일째 전세대책... 단기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예상

공급시기 앞당기는 방안 마련

이번 주 18일째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의 새 전세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18일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관회의에서 발표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단기적으로 수만 호 수준으로 늘리되, 공급시기도 내년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골간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

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기존 정책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IMF, 올해 한국 GDP 세계 10위 전망

1조5868억 달러... "코로나19 따른 경제 충격 덜 받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GDP(미 달러화 기준)는 1조5868억 달러로, 세계에서 10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해 각각 12위,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10위를 차지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한국은 2004~2005년 연이어 10위에 오른 이후 2017년까지는 10위권 밖에 밀려나 있었다.

올해 한국의 10위 탈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

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IMF는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제시했다. 국가별로 인도(-10.3%), 프랑스(-9.8%), 독일(-6.0%), 이탈리아(-10.6%), 스페인(-12.8%), 일본(-5.3%), 미국(-4.3%), 러시아(-4.1%), 브라질(-5.8%), 멕시코(-9.0%), 사우디아라비아(-5.4%), 남아프리카공화국(-8.0%) 등 대부분 국가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의 성장률(-1.9%)도 마이너스로 예상했지만, 이마저 중국(1.9%)을 제외한 주요국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내년 GDP도 1조 6741억 달러로 역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보수의 해방구 된 P... SNS로 번진 美 정치싸움

〈신생 소셜미디어 '팔러'〉

트위터·페이스북 표현규제 강화에 트럼프 지지자들 '팔러'로 환승 자유분방 이념논쟁... 분열 가속

미국 대선 이후 더욱 첨예해진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소셜미디어로 옮겨붙었다. 소셜미디어 업계 거물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 결과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히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제재가 덜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팔러'라는 신생 소셜미디어로 갈아타면서 '포스트 대선' 갈등이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겼다. 급기야 유명 방송 앵커와 자산가들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을 한층 부추기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팔러는 지난주 안드루 이드 기기에서 처음으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다. 애플 기기에서는 페이스북보다 높은 3위였다. 팔러의 이용자 수는 일주일도 안 돼 두 배 이상 증가해 10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고작 30명의 직원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팔러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미국 대선 전후로 '발언대'를 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과 관련한



“선거 도둑질 막아라” 대선 불복 시위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은 슈퍼맨, 조 바이든 당선인은 죄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리덤플라자에 나와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 도둑질을 멈춰라”, “표 도둑을 막아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를 전후해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대안으로 팔러를 선택한 것이다.

201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팔러는 기능 면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기존 소셜미디어와 매우 유사하다. 팔러 이용자들은 '지지투표(upvote)'를 통해 게시물에 페이스북처럼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메아리(echoed)'라는 방식

로 리트윗과 유사하게 답글을 달 수도 있다. 차이점이라면 팔러는 '자유 발언'을 내걸고 사실상 중재 결정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팔러는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다. 중요 발언, 그래픽 폭력, 포르노 등 일부 콘텐츠를 숨기는 필터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이런 최소한의 통제는 자원

봉사자인 '커뮤니티 배심원'이 처리한다. WSJ는 팔러의 이처럼 느슨한 정책이 자유분방한 정치적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까지 '나를 따르라' 식으로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팔러로 갈아타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 성향 미디어인 폭스비즈니스의 간판

앵커 마리아 바티로모는 최근 트위터에서 “나는 곧 (트위터를) 떠나 팔러로 갈 것”이라며 “팔러에 계정을 즉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폭스뉴스 진행자 손 헤네티,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마크 레빈, 극우 논객 로라 루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발언대를 팔러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도 팔러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팔러에는 우익 성향 거물들이 자금을 대고 있는데, 헤지펀드 투자자 로버트 머서의 딸인 레베카 머서가 팔러의 최대 재정적 지원자 중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팔러가 사실상 머서 집안 소유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으로 확연히 갈리는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식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데, 팔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보수 성향 이용자만 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前 연준 의장〉

차기 재무장관 '엘런' 물망

바이든 당선인측, 거물급 후보 내세워 美의회 주도 포석

재닛 옐런(사진)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차기 조 바이든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떠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추수감사절 전에 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생각이다. 그동안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재무장관(국제 담당)을 지낸 레이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언론들은 옐런 전 의장을 재무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미는 분위기다. 주요 인사 승인 권한이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지도에서 밀리는 후보를 내밀었다가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수 100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50석을 굳혔고, 내년 1월 결선 투표에서 남은 2개 의석 중 1개를 가져가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유지하지만, 새 의회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처럼 '트위스트 의회'가 계속되면 재무장관은 예산문제 등에서 상하 양원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무장관에 거물을 내면 민주당은 세제개혁 등의 협의에서 의회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옐런 전 의장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며,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환경대책에도 일가견이 있다. 대선 유세 기간에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양극화 문제를 놓고 옐런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또 옐런은 2014년 연준 의장에 취임할 때 이미 의회 승인을 한 번 거친 만큼 상원에서 인준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옐런 전 의장은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자 강연 일정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되든 차기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와 세계 개혁, 은행 개혁 등 바이든 정권의 주요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은행 사업과 증권 사업을 분리하는 현대판 '글래스-스티겔법'을 공약했는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실현은 어렵다. 따라서 바이든 체제는 주요 정책으로서 경제 격차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춘 금융 시스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은 정권 강령에서 '연준에 의한 은행계좌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국 가계는 5.4%(약 710만 가구)가 은행계좌가 없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여론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 현금급부 방안을 발동했지만, 저소득층은 은행계좌가 없어 이마저도 제외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 은행계좌' 실현을 주장, 연준이 아닌 연방우체국(USPS)에 은행계좌를 공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증시·펀드 자금유입 20년來 최고... 글로벌 시총 신고점

미국 대선 마무리·코로나 백신 호재 세계 시총 95조 달러 한달 새 9.2% ↑

전 세계 주식투자펀드 자금 유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주간 기준)



오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화이자가 9일 백신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장중 최고치인 3645.99까지 올랐다. S&P500지수는 이달에만 9% 이상 뛰었다.

유럽 주요국 증시의 시총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달 헝가리와 스페인은 시총 증가율이 각각 23.4%와 20.2%였고, 프랑스와 벨기에, 아일랜드도 17%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 시총 증가율이

11%를 기록해 86개국 중 28위에 올랐다. 주식연동형 펀드에도 자금이 몰렸다. 시장조사업체 EPFR글로벌에 따르면 5-11일 1주일 간 전 세계 주식펀드에 모인 자금은 44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EPFR가 자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이 중 320억 달러는 미국 주식펀드에 유입된 것으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주식펀드에 유입된 자본 대부분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나왔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의 자금 투입 규모는 411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펀드 투자 규모는 33억 달러에 불과했다.

존 노만드 JP모건 투자 전략가는 “미국 증시는 수년간 이어질 랠리를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바이든의 승리가 골디락스(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국면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S&P 500지수가 내년 초까지 12% 올라 4000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혜림 기자 rog@

TSMC “인재유출 막자” 임직원 임금 20% 인상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20%’라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으로 인재 유출 단속에 나섰다. 중국에서 고액 연봉을 미끼로 인재를 빼가자 10년 만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TSMC는 전날 “회사의 성장에 따라 기본급을 20%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TSMC는 “기본급의 경쟁력은 신규 인력 채용과 기존 인력 유지의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인상은 대만 내 직원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에 해당하는 연말 보너스를 받아 총 26개월 어치의 월급을 연봉으로 받는다. 석사 학위가 있는 엔지니어는 연말 보너스와 월급 17개월치의 보너스 등 총 3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다.

TSMC가 대대적인 급여 인상에 나선 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반도체 인재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와 QXIC는 지난해 TSMC의 직원을 각각 50명씩 데려갔다. QXIC는 아예 TSMC의 공장과 가까운 곳에 연구·개발(R&D) 기지를 세웠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TSMC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TSMC의 올해 채용 인원은 8000명으로, 매년 설계와 공정 엔지니어 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계획보다 두 배나 큰 규모다.
 최혜림 기자 rog@

신한금융,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탄소 배출량 제로화

동아시아 첫 '제로 카본' 선언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제로 카본'을 선언했다.

신한금융은 13일 이사회 산하 사회적임경영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제로 카본 드라이브는 국제적인 탄소 중립(Carbon Neutral)정책에 발맞춘 신한만의 차별화된 친환경 금융 전략이다. 고 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신한금융은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통해 자산의 탄소배출량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친환경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향후 신한금융은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 자체적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6%, 2040년 88%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

고탄소 배출 기업 대출·투자 관리 파리기후협약 부합 방법론 활용 친환경 업체·사업 금융 지원 확대

오의 탄소 배출량은 2030년 38%, 2040년 69%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기업·산업에 대한 친환경 설비 전환 등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한금융은 탄소 배출 측정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 이전부터 국내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 총 1042개 대상으로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탄소배출량을 산출 및 관리하는 DB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 제로 카본 드라이브의 과학적 추진을 위해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의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욱 고도화 할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SBTi, PCAF 가입도 추진한다.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 연합을 비롯, 한국,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또 HSBC, Barclays(바클레이스), ANZ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업 내 반영을 추진 중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친환경 금융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의 필수적 역할"이라며,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룹의 미션 아래, 신한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는 친환경 경영과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KB금융은 9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인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소속 금융사들도 석탄 화력 관련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금융그룹 '제로 카본 드라이브' 전략 개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 고탄소 배출 영역 관리 · 조정
- 파리기후협약(2°C 시나리오) 기반, 과학적 Tool 활용한 감축 목표 수립
- 감축 목표 범위: 그룹 내부 배출량 +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친환경 기업 지원 → 친환경 자산 규모 확대
- 친환경 기술 금융 지원: 친환경 기술회사 등에 대한 우대 검토
- 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대출 확대
- 기업의 친환경 경영, 개선 자금 지원

* 출처: 신한금융지주

억대 신용대출로 집 못 산다

연봉 8000만원 이상 직장인, DSR 규제 40% 적용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영끌' (영혼까지 끌어쓰는 뜻)로 인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2주 안에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회수 대상은 30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금액이다.

이달 30일 이전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고 대책 시행일인 30일 이전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려는 게 이번 규제의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젊

은 부부들의 '집 구매'도 덩달아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봉 80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자에 DSR 40%면 꽤 임팩트가 크다는 평가들이 나온다"며 "젊은 부부들이 '영끌'로 각자 1억~2억 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3억~4억 원을 만들어서 집을 사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대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목표 수치를 맞추도록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한은 내년 1분기까지다. DSR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은행 자체 고 DSR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계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20.11.15~2021.11.14)
교보증권 준비감시인 심사필 제 76-86호(2020.11.15~2021.11.14)

KYOB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오토체크, 영웅증권, 만디엔투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L(GS)서점입금 등 10% 청구 할인
SK, KT, LG+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CMA 금융서비스 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선월 실적 기준 총족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카드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거래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채권보유공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제미 사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그룹-한국남부발전 업무제휴 협약



손태승(왼쪽 두 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3일 신정식(왼쪽 세 번째)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남부발전 '그린 뉴딜' 동맹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국남부발전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그동안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사업부문에서 협력해 왔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그린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전 분야에서 공공성 기반 국민 참여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모델에 금융지문을 비롯한 포괄적 금융지원은 물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다양한 금융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현대차, 자율주행기술로 고령 운전자 사고 막는다

‘조건부 면허’ 추진 맞춰 인지·행동 보완장치 개발
장애물 적외선 감지 등 실효성 검증 후 도입 가능성

현대차그룹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행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주행 2.5단계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하는 2단계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며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3단계의 중간 수준이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특정 부문 세분화 개발에 나섰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하되 세부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및 행동 반응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을 마쳤고,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동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행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적성검사’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 또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가 밝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또는 인지)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다.

현대차그룹은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맞춰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인 ‘첨단 안전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이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가칭 ‘고령 운전자 세이프티 패키지’를 개발하면 정부가 이 기술을 검증한다.

실효성을 검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 시스템의 장착을 조건으로 고령 운전자의 ‘조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목적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평가 주기적인 운전 적합성 평가제 검토 (6~12개월 단위)

조건 야간운행 금지, 고속도로 주행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주행안전장비 장착 등

표본 英·日·호주 관련(유사)시행령 기반 등

현대차그룹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미 상용화된 레벨 2.5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해 행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의 필요 조건을 충족할 실효성 검증도 추진한다. 게티이미지

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확인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야간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조등 범위를 벗어난 영역은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실제 차 적용을 검토 중이다.

긴급 상황 때 페달을 밟는 속도와 강도

를 보완해 안전 운전을 돕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자율주행기술이 ‘레벨 3’까지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레벨3과 레벨4 사이에는 적잖은 기술장벽이 존재한다”라면서도 “레벨 3 기술이 고도화되면, 무조건적인 ‘고령 운전자 운전금지’ 대신 ‘조건부 면허 제

도’ 도입이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했고 더 세분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고령 운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사상 첫 70%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노트·갤Z폴드·갤Z플립 등
3분기 플래그십폰 러시 영향

삼성전자가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시기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4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72.3%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줄곧 6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분기 점유율이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동기 점유율은 67.9%,

전 분기 점유율은 69.4% 수준이다.

8월 갤럭시노트20을 시작으로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 등 플래그십 신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점유율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갤럭시Z폴드2는 초도 물량이 극도로 적었던 작년 갤럭시폴드보다 출하량이 수 배 이상 많았다.

애플과 LG전자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애플은 작년 동기(9.8%)보다 0.9%포인트 떨어진 8.9%였고, LG전자는 작년 동기(11.7%)보다 2.1%포인트 떨어진 9.6%로 두 제조사 모두 10%를 하회했다. 다만 최근 아이폰12가 출시되면서 4분기엔 삼성전자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전자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LG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7년 연속 ‘가전 및 여가용품’ 분야 글로벌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평가에서 정도경영, 위기관리, 친환경 제품, 인재육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9년 연속으로 ‘DJSI World’에도 이름을 올렸다.

DJSI는 매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오는 지수다.

1999년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인덱스와 투자 평가사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함께 만들었으며 지속가능 평가 및 사회적책임투자(SRI)의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61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은 기업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상위 10%인 기업은 ‘DJSI World’에도 편입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맞춤형 가전 체험 ‘나답게 스튜디오’ 운영

내년 1월까지 전국 20개 백화점

삼성전자가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가전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나답게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나답게 스튜디오’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통합 슬로건인 ‘가전을 나답게’를 잘 반영한 ‘비스포크’ 주방가전,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을 제안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삼성전자는 이달 13일 갤러리백화점 광고점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본점·부산본점, AK백화점 수원점 등 전국 주요 백화점 20개 지점에서 ‘나답게 스튜디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나답게 스튜디오’는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맞춤형 가전을 더욱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비스포크’ 냉장고·조리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비스포크 키친존 △QLED 8K, 라이프스타일 TV로 구성된 TV존 △공기청정기 ‘무풍큐브’와 ‘비스포크 큐브’냉장고로 꾸며진 큐브존 △‘그랑데AI’,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를 중심으로 한 의류케어존 등이 대표적이다.

제품 체험 외에도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함께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 대상으로 한정판 굿즈를 증정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품목별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家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승진

그룹, 임원 4명 승진 인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사진) 한화생명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가 전무로 승진했다.

한화그룹은 15일 김동원 전무 등 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화그룹은 “김 전무는 한화생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사업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 속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보험사

로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예일대 출신으로 2014년 ㈜한화 디지털팀장으로 입사했으며 한화생명 전자혁신실 부실장과 디지털혁신실 상무 등을 역임해 디지털 부문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작년 8월부터는 한화생명 CDSO로 근무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격리’ 없는 국제노선 재개에 ‘시기상조’ 신중론

호주-뉴질랜드 양국 간 이어 홍콩-싱가포르 22일부터 허용
아태 항공사협 ‘위험한 접근’...코로나 대응 표준화 전제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막힌 하늘 여행길을 다시 여는 방안으로 ‘트래블 버블’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교통연구원원이 내놓은 ‘항공·공항 정책 트렌드&인사이트’ 최신호에서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국제노선 재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대응 체계가 국가 간에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현 상황 속에서 단순히 한 국가가 전염병 관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국가와의 국제노선을 재개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일본 등과 국제노선 재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노선 재개에 앞서 상대국의 전염병 확산 양상과 방역 체계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향후 트래블 버블 구축 및 확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도 “트래블 버블은 구현하기 복잡하며, 각 국가 방문자가 코로나19 테스트와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라는 상호간 이해와 재발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추적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트래블 버블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다. 홍콩은 우리나라에도 트래블 버블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항공업에서 국제선 비중이 커 다른 나라에 비해 트래블 버블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이들의 트래블 버블 제안에 호응할지도 불확실하다.

트래블 버블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두 국가 이상이 맺는 여행 협약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국 여행객들은 격리조치 없이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다.

수바스 메는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의 위험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트래블 버블을 협상하기 위한 정책에 착수하고 있지만 ‘흔사’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더라도 검역문제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변동 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싱가포르항공이 상대적으로 작은 항공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국제노선 재개에는 전염병 대응 전략의 글로벌 표준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CAPSCA)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긍정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를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입국자가 방역당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출시 한 달 만에 더 편리해진 ‘LG 윙’

화면 전환 속도 등 업데이트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윙(LG WING)’이 더욱 편리해진다. LG전자는 지난 12일부터 ‘LG 윙’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새롭게 추가 및 개선되는 기능은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는 동작만으로 메인·세컨드 스크린 화면 이동 △스위블 시 화면 전환 속도 개선 △POLED(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색감을 잘 살려주는 ‘다크 라이징’ 배경화면 테마 추가 등이다.

LG전자는 지난달 6일 이 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 후, ‘LG 팬텀’ ‘퀵헬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실제 사용 고객의 목소리(VOC)를 자세히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LG 팬텀’ 1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LG 팬텀’은 지난 9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1기를 모집, LG 스마트폰 사용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LG전자는 취합된 고객들의 의견을 사내 ‘고객 제안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업데이트 항목을 선정한다.



‘고객 제안 협의체’는 상품기획, 개발, 고객지원 등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제품 실사용 고객의 불편이나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자리다. 각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 방법도 도출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 불편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편의성까지 개선하려는 강력한 사후지원의 일환이다.

‘LG 윙’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바(Bar) 타입 스마트폰의 편의성에, ‘스위블 모드(Swivel Mode)’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더한 제품이다.

고객은 평상시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메인 스크린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숨어 있던 세컨드 스크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차박’ 인기에 올 SUV 판매량 10% 증가

올들어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용차 시장 중 43.7%에 달한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완성차 5개사의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SUV는 총 50만506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46만1179대)보다 9.5% 늘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체 승용차 판매량(115만6837대)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43.7%였다. 작년(43.9%)과 비슷한 수준이다. 레저용 차량(RV) 전체로는 55만2521대가 판매되며 작년보다 7.3%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였다.

SUV의 인기 지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차박(차안 숙박)이 가능한 SUV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형 쏠렌토와 투싼, 쏘렌토 등 신차 출시 효과가 작용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기아자동차 쏠렌토가 전체 SUV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쏠렌토는 지난달까지 6만9883대 판매되며 작년 대비 67.8% 늘었다. 현대차 팔리세이드(5만3116대)는 전체 SUV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됐다. RV 차종 중 올해 8월 4세대 모델을 출시한 카니발은 지난달 1만2093대를 판매하며 내수 1위를 차지했다. SUV 인기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총 판매량은 작년(57만5662대)을 넘어 60만대 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화물 운송에 디지털 접목…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

인터뷰

박준규·박재용 로지스팟 공동대표

500개 기업고객 대상 ‘디지털 운송 통합관리 플랫폼’ 제공
운송·배차·정산 업무 디지털화…마감시간 최대 90% 줄여
내년 상반기에 신규 M&A 계획, 연매출 650억 달성 목표

상품을 주문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를 남짓. 기한 내 신속하게 상품을 입고 운송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절차에 주목한 이들이 있다. 전화와 수기로 이뤄지던 운송, 배차, 정산 업무 기록에 디지털을 입힌 로지스팟의 박준규, 박재용 공동대표를 만났다.

박준규 대표는 “바디프랜드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화물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며 “규모가 크지만, 업무 처리 과정이 낙후된 모습을 보면서 인수합병(M&A)과 IT를 활용하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쪼개져 있는 곳은 통합이 돼야 성공할 수 있어서 M&A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동기인 두 대표는

소규모 물류 회사인 ‘국제로지스’를 인수하면서 2016년 8월 화물 운송 플랫폼 ‘로지스팟’을 창업했다. 2018년 카카오벤처스,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 19억원, 2019년 알펜루트자산운용 시리즈B 투자 100억 원을 유치했다. 매출액도 △2017년 42억 원 △2018년 58억 원 △2019년 180억 원 △2020년 380억 원(추정치)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로지스팟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운송 통합관리 플랫폼 △운송업무 관련 문서 작업 자동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객사는 한샘이펙스, 넥센타이어, 퍼시스 등 500개사가 넘는다. 수기와 전화로 하던 업무를 모바일 앱과 PC 솔루션으로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전화량은 최대 75%, 마감 시간은 최대 90%까지 줄었다. 여기에



박준규(왼쪽), 박재용 로지스팟 공동대표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차 운영팀을 통해 화주와 차주 간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해졌다.

최근에는 종합물류기업 ‘티피엠로지스’를 추가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연 매출 650억 원, 고객 수 700개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신규 M&A를 계획하고 있다.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도 진행 중이다.

박재용 대표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역량을 확장했다”며 “화물 운송을 비롯해 컨테이너 배차, 항공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가 더딘 국내 물류 시장이 개선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에도 고충

은 있다. 두 공동대표는 스타트업으로서 느끼는 한계로 ‘규제’를 꼽았다. 대표적으로 영업용 화물차 넘버(번호판) 제한을 지적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 넘버는 개인 택시처럼 허가제로 총량이 정해져 있다. 신규 화물차를 몰려면 기존 화물차주로부터 3000만 원 내외를 지급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번호판을 사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증하면서 택배 등 운송 물량은 많이 늘어난 반면 허가된 번호판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박준규 대표는 “법체계(리걸 스트럭처)가 환경에 따라 같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규제는 건 기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전반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닌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기업들과의 협업 부족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재용 대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부분이 많이 오픈돼 있는데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M&A 시장도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윤기쁨 기자 modest12@



하현희 부회장 “LG유플러스에 열광하는 팬덤 만들기”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팬덤의 힘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욱 성장했다”며 “정보통신기술(CT) 기업뿐만 아니다. 완구업체 레고는 충성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를 집중하는 ‘팬 베이스(Fan Base)’ 확장 전략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3일 4분기 임원 워크숍에서 “아마존, 넷플릭스처럼 고객 팬덤을 만들고 주문했다. 하 부회장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코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 축제 ‘비즈쿨 페스티벌’ 17일 개막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연계행사로 17일 ‘청소년 비즈쿨 주간’을 선포하고 21일까지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청소년비즈쿨페스티벌’은 꿈·끼·도전·진취성 등 기업가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창업 축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비즈쿨 랜선 원정대(슬로건: 랜선 타고 같이UP 가치UP)’를 주제로 정했다.

비즈쿨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새싹캠프를 통해 선발된 중·고등학생의 우수 아이템에 대한 최종 발표인 ‘창업경진대회’다. 487개 비즈쿨 학교의 창업동아리에서 최종 중학생 6팀과 고등학생 14팀이 결선에 나와 자외선(UV)광선 승강기 버튼 살균소독기 등 참신한 제품을 발표하며 모의 투자 심사도 받는다.

이재훈 기자 yes@

‘물고기 인공장기’로 화학물질 유해 평가

KIST, 인간 유전자와 90% 일치 ‘제브라피쉬 인공간’ 개발

제브라피쉬(zebrafish·열대어의일종·사진)의 간을 모사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를 배양해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나 화장품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개발된 새 제품은 인체에 대한 독성과 환경에 대한 독성 두 가지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화학물질의 환경 독성 평가는 물벼룩, 녹조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와 90% 이상 동일한 물고기인 제브라피쉬 등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제브라피쉬가 척추동물로 분류돼 윤리 문제가 생기면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할 수 있게 됐다.

KIST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브라피쉬의 간을 모사한 오가노이드를 배양해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KIST는 독일 현지법인인 KIST 유럽 연구소 환경안전성연구단 김용준 단장 연구팀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공현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해 개발했다.



공동연구진은 제브라피쉬 간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PEG)을 활용해 오가노이드의 뼈대(지지체)를 제작했다. 그 결과, 제브라피쉬 간세포들이 스스로 결합하고 조립돼 28일 동안 형상을 유지해 장기적으로 배양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6주 이상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만성 독성 시험용 제브라피쉬의 인공 간 오가노이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인공 간을 활용하면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직접 시험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스타 강사’가 뭐기에

업체·강사 간 댓글 비방부터 수백억대 소송전까지
“학원가도 넘은 유치전, 피해는 고스란히 수강생 몫”

‘1타 강사’를 둘러싼 교육업계 진흙탕 싸움이 지속하고 있다. 업체·강사 간 댓글 비방부터 수백억 원대 소송전까지 공방이 치열하다.

15일 입시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 간 ‘1타 강사’ 소송 논란으로 촉발된 입시 교육업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타 강사’는 해당 과목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인기 강사를 뜻한다. 수많은 수강생을 이끌고 다니는 ‘1타 강사’ 영입 여부에 따라 교육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는 무리해서라도 1타 강사 모시기에 혈안이다.

지난 5월 먼저 소송에 돌입한 건 메가스터디 측이다. 메가스터디는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37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명분이다.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373억 원, 유대종 강사 개인에 491억 원으로 모두 864억 원에 달한다. 유 씨는 수능 국어 영역 1타 강사로, 지난해 11월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옮겼다. 에스티유니타스도 현재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난·비방하는 등의 ‘댓글 조작’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투스교육 소속의 윤리·사회문화 영역 1타 강사 이지영 씨와 메가스터디교육 수학 영역 1타 강사인 현우진 씨 간의 송사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현 씨를 고소했다.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1타 강사’를 온라인상

에서 집중적으로 비방한 학원과 마케팅 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법적 다툼 외에 업체 간 ‘1타 강사’ 유치전 자체도 뒷말이 무성하다. 1타 강사를 유치하기 위해 과육을 부리다 보니 이미 해당 강사를 믿고 연간 수강증을 끊었던 수험생들은 실시간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기 일쑤다.

공교롭게도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 간 다툼이 또다시 재현됐는데, 유대종 1타 강사 법적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 이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에서 역으로 메가스터디(메가공무원)로 자리를 옮겼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대종 강사를 뺀 것을 설욕이라도 하듯 전 강사를 영입하면서 업체 간 1타 강사 쟁탈전은 절정에 달했다. 여기에 이투스 과학탐구 영역 강사 3명도 메가스터디로 이적했다. 오지훈(지구과학), 백호(생명과학), 배기범(물리) 등 이투스에서 과학탐구 영역을 이끌던 스타 강사 3명이 동시에 자리를 옮겼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1타 강사가 업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입 전쟁이 가속화되고, 비방·법적 다툼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1타 강사를 영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오르지만, 마케팅 비용과 향후 계약, 다시 영입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yes@

카페·샌드위치까지... 코로나가 키운 '무인창업 시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에 이어 코로나 19로 언택트 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창업 시장에 무인 바람이 거세다.

세탁편의점 크린토피아는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코인워시 창업 모델을 선보이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세번째 3000호점의 주인공에 올랐다. 비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최초의 3000호점 브랜드다.

1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스타디 카페, 커피전문점까지 무인 창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무인창업 모델은 인건비 부담이 없어 고정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를 갈수록 선호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크린토피아는 지난달 28일 '크린토피아+코인워시 미사강변호반점'을 오픈하며 창립 28년만에 3000호점을 돌파했다. '크린토피아+코인워시' 창업모델은 세탁편



대만 샌드위치 무인매장 '홍루이젠 PICK'.

의점과 코인빨래방의 장점을 다한 세탁편의점이다. 세탁편의점 운영 시간에는 점주가 상주하면서 운동화나 아웃도어 의류, 교복 등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인빨래방을 무인으로 운영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유인으로 운영하는 '세탁편의점' △유무인 운영이 가능한 '크린토피아+코인워시' △무인으로만 운영 가능한 '코인워시' 등 세가지 창업 모델 중 창업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무인 코인워시 창업모델 도입 크린토피아, 3000호점 돌파 커피숍 '어타' IoT 원격관리 대만 샌드위치 전문 '홍루이젠' 무인매장 6개월 새 70곳 오픈

있다.

베모스가 지난 8월 론칭한 'AWTA(어타, A WAY TO ALICE)'는 커피전문점을 무인화한 브랜드다. 어타는 남양주시 별내에 첫 직영점을 오픈하고 내년 초까지 강릉, 건대, 경주, 부산 등에 10여 개 가맹점의 추가 오픈이 예정돼 있다. 어타는 베모스가 개발한 무인커피 밴딩머신과 디지털&스낵머신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점주가



베모스가 8월 론칭한 무인 커피전문점 '어타'.

집에서도 원격관리를 할 수 있다. 밴딩머신에서는 아메리카노, 녹차라떼, 허브티 등 16종의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스낵 머신을 통해 마카롱, 샌드위치, 다쿠아즈 등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스타디카페도 무인 창업 모델이 등장했다. '디플레이스'는 무인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IoT 기술을 도입한 스타디카페다. 가맹점주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매장 상주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원격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만 샌드위치 전문점 '홍루이젠'은 4월 무인매장 '홍루이젠 PICK'을 오픈했다. 홍루이젠 PICK은 상주 직원 없이 24시간 100%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소비자가 직접 진열된 상품을 고른 뒤 셀프 키오스크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홍루이젠 PICK'은 6개월 만에 70여 개의 매장을 연달아 오픈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내에 30여 개 매장의 추가 오픈까지 확정된 상태다.

김동현 창업 컨설턴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다"며 "무인 매장의 확산과 인기 상승은 한국 창업지도를 단번에 바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원희 기자 yhh1209@

외식업 창업 증가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였고, 폐업 증가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일반음식점 105만7651곳의 영업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에 인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은 각각 7만 8800개, 7만3500개로 지난 19년 중 인허가 음식점 개수가 가장 많이 등록된 해로 기록됐다.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외식업 창업 증가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이라며 "실제로 개최 전년도 상반기부터 개최 전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 다른 어떤 시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음식점이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이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월드컵으로 2001년 1월 칼스버그컵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거의 매달 경기를 가지면서 국민 열기가 점차 달아올랐다"면서 "붉은악마로 대변되는

외식업, 2002 월드컵때 우르르 창업 2019 최저임금 인상때 우수수 폐업

19년간 영업신고 데이터 분석 월드컵 전후 인허가 가장 많아 임금인상 1월 폐업 비중 최고

거리음원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며 외식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업 데이터를 사업체 수가

아닌 '당월 전체 업체 수가운데 폐업 업체 수의 비중'으로 본 결과 2018년 1월과 2019년 1월은 각각 0.82%, 0.85%로 2016년 1월 0.59%, 2017년 1월 0.73%보다 높았다. 또, 2017~2019년 3년간 12월 '당월 전체 업체 수가운데 폐업 업체 수 비중'은 각각 1.10%, 1.05%, 1.07%로 이전 3년간(2014~2016년) 같은 달에 기록한 0.81%, 0.87%, 0.94%보다 컸다.

보고서는 "폐업 증가에 영향을 끼친 다

른 사건은 2018~2019년 2년에 걸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직전인 전년도 12월과 첫 적용된 당해 연도 1월의 폐업 업체 비중은 다른 기간보다 확실히 컸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특별한 대안으로 선택돼야 할 외식업 창업이 '특별한 대안이 없기에' 선택되는 현실은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어 언제든 쉽게 뛰어 들 수 있다는 외식업의 특성과 맞물려 초래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수요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도한 신규 진입으로 시장 포화를 겪고 있다"며 "허가제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십일절 빅스마일데이 쓱데이 롯데온세상

한국판 블프 왕좌 "나야나"

빅스마일데이 거래액 60% 급증 십일절 당일 2018억 거래 최대치 '쓱데이' '롯데온세상'도 매출 신장

한국판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의 자제 할인 행사가 연달아 대박을 쳤다. 이베이코리아의 '빅스마일데이'와 11번가의 '십일절'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신세계·이마트의 '쓱데이'도 흥행에 성공하며 이커머스 대형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르면 2022년 해외 직구에 과세 확대 움직임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판 '블프'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이커머스의 경쟁은 내년에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G마켓과 옥션,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빅스마일데이의 스마일배송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평소 스마일배송의 하루 평균 거래액과 비교하면 110% 높은 수치다. 빅스마일데이 12일간 누적 판매량은 4032만 개로, 하루 평균 336만 개씩 판매된 셈이다. 작년 행사보다 15% 늘어나 판매량도 역대 최대 기록이다.

11번가가 11월 11일에 진행한 '십일절' 행사도 하루 거래액 2018억 원이라는 국

내 이커머스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작년(1470억 원) 대비 37% 이상 증가한 수치다. 1인당 구매금액은 전년대비 34% 늘었고, 하루 판매 상품도 16% 증가한 499만 개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신세계그룹이 진행한 '쓱데이'도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64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롯데온이 진행한 '롯데온세상'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전후로 대규모 행사에 나선 것은 11월 중국 광군제와 11월 마지막 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수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해외 직구로 소비자들이 몰리기 전에 힘을 빼놓자는 전략이다.

더욱이 2년 뒤엔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도 설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커머스 업계로서는 그 전에 '한국판 블프'의 왕좌를 굳혀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졌다.

정부는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 한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도에 150달러(약 17만 원)의 한도만 지키며 연간 수백~수천만원 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지만, 연간 누적 한도를 설정해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될 경우 블프와 광군제의 직구 수요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쏠리며 반사익이 기대되는 만큼 이커머스의 '11월 왕좌 다툼'은 내년에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세계 첫 롤러블 TV 롯데백화점서 체험

롯데백화점이 세계 최초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본점 8층에 프리미엄 팝업 매장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에서 세계 최초 롤러블 TV를 직접 시연해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번 팝업 매장은 26일까지 운영된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화면을 등글레 말거나 펼 수 있는 플렉서블 TV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65인치에 4K 화질을 갖췄으며 4.2채널 100W 출력 스피커를 탑재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오투기 레시피 여기 다 있네

홈페이지 '오'키친 오픈

오투기는 다양한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담은 홈페이지 '오'키친(O'Kitchen)'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키친은 '오투기 키친'의 줄임말로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오투기의 부역을 의미하며, 요리를 통해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생활이 이뤄지는 '스위트홈'을 만들어 가고자 만들어졌다.

'오'키친의 레시피는 요리 종류와 주재료, 조리방법, 조리도구 등의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됐다. 요리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빠르게 완성되는 스피

드 레시피, 오투기 제품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 레시피 등으로 구성됐다. 각 레시피에는 조리시간, 준비시간, 인분 수, 영양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는 물론 레시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쉽도록 링크, 메일 등의 태그 기능을 추가하여 레시피 제안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 요리에 사용된 오투기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클릭하면 '오투기 물'의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레시피 검색은 제품명이나 재료, 조리방법, 조리도구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계절이나 캠핑, 생일, 파티 등 상황 맞춤형 레시피 검색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에



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키친의 레시피는 오투기 연구원과 셰프, 마케터들의 추천과 설문조사를 통한 120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갈 예정이다.

오투기 관계자는 "다양한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며 요리를 통한 스위트홈을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레시피 홈페이지 '오'키친'을 오픈했다"고 말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코로나 재확산·달러 약세 ‘이중고’ ‘실적 비상등’ 커진 수출기업

수출기업들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듯싶었지만 ‘달러 약세’라는 암초를 만났다. 외화부채가 큰 기업인 경우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기업은 환율이 10원만 하락해도 대규모 환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가 지속한다는 전망에 기업들도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0원(0.07%) 오른 1115.60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9일 환율은 112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 2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이래로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사이 원·달러 환율은 50원이나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급격한 달러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선 ‘바이든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은 달러 유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자금도 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장은 달러 약세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당장 수출 부문에서 미국의 무역관련 정책 기조와 함께 재고의 재축적 이슈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환경”이라며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조로 원화 가치 강세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달러 약세가 지속하자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대표적인 수출 산업은 웃지 못한 상황이 됐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약해지더라도 급격한 환율 하락은 환손실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총수출은 0.51% 감소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 전망 약재 접친 조선업계 다시 먹구름 수출 비중 높은 전자업계도 긴장

전문가 “달러약세 영향 제한적... 국내의 경기 흐름, 기업실적 좌우”

구결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업계의 장밋빛 전망에도 먹구름이 겹쳤다. 9월 대우조선의 ‘단비’ 같은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LNG 선 발주에 대한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물동량 감소, 선사들의 투자 지연 등 약재가 겹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4분기 달러 약세까지 가세하자 증권가는 환헤지를 하는 삼성증권업을 제외한 대부분 조선소는 실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수주가 급감하면서 수주잔고가 부족해진 조선사 간의 수주 경쟁이 신조선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세가 상승이 그나마 위안이었던 7월까지 12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1130원 밑까지 하락하면서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등 매출 대부분을 외국에서 거두는 전자 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4분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과 화웨이 반도체 판매 감소, 3분기 세트 부분 출하량 급증에 따른 조정 과정 등으로 매출은 전분기보다

감소한 64조 원대, 영업이익은 10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올 4분기에는 출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및 평균판매 가격(ASP) 하락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6490억 원과 859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약세 속 기업 실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오히려 향후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는 환율 동향보다 ‘국내의 경기 흐름’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양호한 국면에서 한국 제품 수요가 높아진다면 사실 환율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하락으로 단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구매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경우 역시, 단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안 살 제품까지 대량 구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수출 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기 상황이지 환율 변동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달러 가치가 국내 시장에 바로 약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아니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 원화의 경우 실질 실효환율을 측면에서 6%가량 고평가된 상황”이라며 “수출기업들의 수출부담 원·달러 환율은 대기업 1000원, 중소기업 1100원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율이 시장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에 수출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지윤 연구원은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분기 초 시장 예상치를 밑돈 상황에서 코스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예상치를 -10% 이상 밑돌 확률이 44.4%로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며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환율이 펀더멘털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리츠	기초자산	상장/추가 자산 편입 시기
ESR켄달스퀘어리츠	11개 물류센터	2020년 12월
이지스밸류리츠	태평로빌딩, 물류센터 편입 고려	2020년 12월
롯데리츠	롯데김포물류센터	2021년 상반기
디앤디멀티에셋리츠(가칭)	영시티 오피스, 일본 오다와라 물류센터 수익증권	2021년 상반기

이커머스 성장에 ‘물류리츠’ 뜬다

국내 첫 물류리츠 ‘ESR켄달스퀘어’ 다음달 상장 롯데·이지스밸류리츠도 물류센터 자산 편입 추진

국내 최초 물류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ESR켄달스퀘어 리츠’가 연내 상장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물류센터를 성장형 자산으로 편입하는 리츠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최근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 IPO)를 완료했다. 켄달스퀘어리츠의 모회사인 켄달스퀘어 로지스틱스 측을 비롯해 캐나다연금 투자위원회(CPPIB)와 군인공제회, 코리아리 등이 주요 기관투자자로 나섰다. 해당 리츠의 기초자산으로는 쿠팡 등이 임차인인 11개 주요 물류센터가 편입되며, 편입 예정 자산 규모는 1조3000억원, 공모규모는 7000억원이다. 23일 수요예측을 거쳐 12월 내 상장할 계획이다.

이커머스의 성장에 따라 물류센터는 주요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정경영연구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2019~2023년 이커머스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19.4%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9월 기준 소비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은 42.5%까지 급등했다. 이에 연간 1조 원에 미달하던 국내 물류센터 거래액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1분기 거래액도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류센터는 경기 민감하지 않은 성장형 자산이며 공급량이 예측가능한 자산”이라며 “또한 오피스 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 2~3년인 반면 물류센터는 3~10년, 해오는 10~20년으로 훨씬 긴 장기 임차계약구조를 지니고 있어 배당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는 상장리츠 기초자산으로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물류센터의 거래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면서 ESR켄달스퀘어리츠의 상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다수의 리츠에서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롯데리츠는 12일 이사회를 통해 롯데김포물류센터를 자산으로 추가 편입했다.

오메리 기자 yerin2837@

ETF, 3개월새 1兆 유입... “성장성 베티”

‘삼성 KODEX200’ 4371억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변동성대신 성장성에 베티하는 투자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최근 3개월간 1조356억 원(13일 기준)이 유입됐다. 이는 국내 설정된 전체 펀드 중에서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채권펀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2분기까지 국내주식 ETF에서 자금을 빼내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했던 것에서 사실상 간접투자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6개월

로 기간을 확대하면 국내주식 ETF에서는 총 1조4815억 원어치 자금이 이탈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4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패턴이 변동성에서 성장성으로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최근 3개월간 자금 유입이 많은 펀드를 살펴보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정반대로 추종하는 인베스나 원유선물 같은 ETF 대신 ‘테마형 ETF’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삼성 KODEX 200’ ETF가 이 기간 가장 많은 자금(4371억 원, 10일 기준)을 끌어모았고, ‘삼성 KODEX 삼성그룹주’와 ‘삼성 KODEX 2차전자산업’ ETF가 각각 2973억 원, 2840억 원어치 자금을 유치해 그 뒤를 이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2030 고객 잡기”... 증권업계 ‘언택트 세미나’ 강화

KB證, VIP 대상 온라인 세미나 삼성證 ‘디지털본부’ 확대·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금융투자업계의 ‘언택트(비대면) 세미나’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면 세미나를 할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세미나가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디지털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언택트 세미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세미나 등 디지털 콘텐츠를 꾸준히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KB증권 등은 내년 시황 전망을 주제로 ‘언택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하나금융투자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17, 18일 ‘2021년 리서치 전망 포럼(사진)’을 진행한다. 리서치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로서 올해로 8회째 개최하는 큰 행사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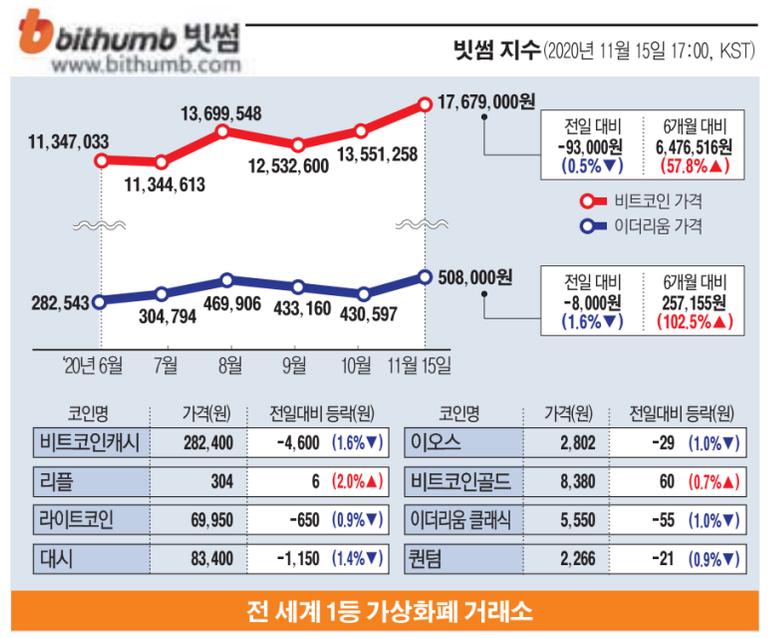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24일 영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투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그룹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개최하지만,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세미나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B증권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고액자산가 등 VIP 고객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언택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명사들의 강연과 KB증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자산관리 솔루션을 총 5주간 매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웨비나(Web+seminar)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참여 인원이 5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진행된 세미나에는 3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삼성증권 역시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담당하는 ‘디지털본부’를 확대 개편해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고객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비대면 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하는 배경에는 20~30대 고객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의 로빈 후드도 주식 거래 이외에 투자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젊은 고객층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또 언택트 세미나는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미나는 좋은 호텔에 장소를 잡아 고객을 초청하고, 최소 화장품 세트와 같은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런 비용들이 줄었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고객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손은지 기자 eo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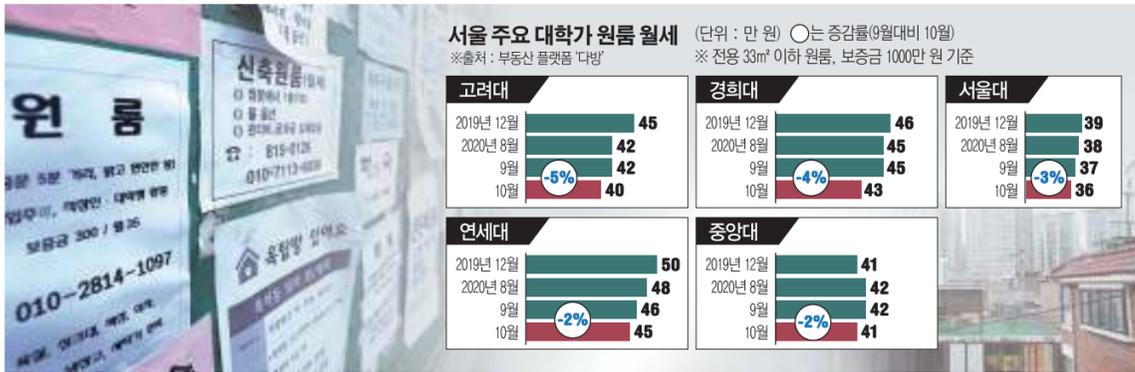
비대면 수업 직격탄...원룸 월세 5만~10만원 '뚝'

신음하는 대학街 임대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이 잦아지면서 서울 대학가 원룸 임대 시장이 신음하고 있다. 대학들이 2학기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 공실률(빈 원룸 비율) 증가와 월세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대학 주변 원룸 공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대학가 원룸 임대시장은 주로 국내 재학생과 중국 등 다른 나라 유학생 수요로 유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자 국내·외 학생 수요가 끊기면서 공실이 늘었고, 이는 원룸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월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인근 성북구 안암동 K공인부동산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빈방이 많고 중앙동 법대 후문 쪽에는 한 건물에 방 12개가 다 비어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대 이공대와 정문 앞 원룸 공실률이 원래 평균 5% 정도였다



국내 재학생·유학생 발길 끊겨 공실률 '쑥'

서울 10곳 중 9곳 원룸 월세, 전달보다 '뚝'

"내년까지 비대면 수업 진행뎀 초토화될 것"

면 지금은 2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가 원룸 수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 등 외국 유학생 수요도 줄었다.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인근 Y공인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들은 지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때 한 번 줄었고 이번 코로나19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대학가 원룸 공실이 늘자 월세 시세도 '뚝뚝' 떨어졌다. 고려대 이공대학 인근 원룸 시세는 전용면적 30㎡ 이하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55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이곳 월세가 50만~60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5만~

10만 원가량 하락한 셈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원룸 월셋값도 하락세다. 북악현동 O공인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나온 방들은 월세를 5만~10만 원씩 낮춰 부르고 있다"며 "인근 오피스텔은 비싼 곳을 기준으로 월세 90만~100만 원짜리는 월 10만 원 정도 시세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10곳 중 9곳은 원룸 월세가 전달 대비 하락했다. 전용 33㎡ 이하(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고려대 평균 월세는 전달보다 5% 하락한 40만 원으

로 조사됐다. 연세대는 전달보다 2% 내린 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고려대와 연세대 평균 월세는 각각 45만 원과 52만 원이었다.

다방 관계자는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2학기 온라인 수업 영향으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려대가 5%로 가장 많이 내렸고 건국대와 경희대, 서울대 등이 3~4% 빠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가 원룸은 학기 시작 전인 12월 말과 1월 계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학들은 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확산한 4월 이후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다. 올해 초 계약한 원룸들은 연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안암동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도 방을 구해놓고 실제로는 한두 달만 살다 나간 곳이 꽤 된다"며 "내년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 공실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부동산114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공급 과잉으로 기복이나 어려운 대학가 원룸과 소형 오피스텔 시장이 초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연속 감소세

하루에 19건...규제가 부른 '거래 절벽'

이달 271건 거래...집값은 '평창'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 한 달 동안 거래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단지가 적지 않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달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71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5615건을 기록한 뒤 △7월 1만646건 △8월 4989건 △9월 3769건 △10월 345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까지 내리 5개월 감소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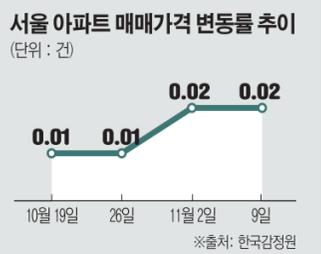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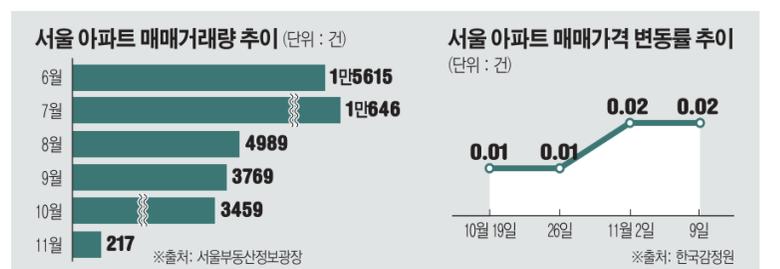
특히 11월 거래량은 하루 평균 19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30일로 아직 10월, 11월 집계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반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에 그쳤던 2018년 11월~2019년 2월 수준의 거래량을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월 거래량은 7월 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와 내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추가 전세대책 영향에 거

래량이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는 끊기는데 가격은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선 두 달 넘게 0.01% 상승에 머물렀던 서울아파트값이 지난 두 주 연속 0.02% 상승했다.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지난주 서울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노원(0.11%)·종로(0.09%)·구로구(0.08%)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경기 위축 등으로 강남권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진 반면 전세난에 쫓긴 세입자들이 중



랑구와 노원·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서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4단지 전용 면적 59㎡형은 이달 초 5억2000만 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중랑구 면목동에선 일신강변 전용 59.6㎡형이 이달 4억6750만 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에서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거래로 1억7000만 원 높게 팔렸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시장에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설 경우 매도자 절대 우위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래는 적고 집값만 뛰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면 추가 상승에 대한 조바심에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 전세가율 54.2%...2개월 연속 상승

전세수급 지난주 131.1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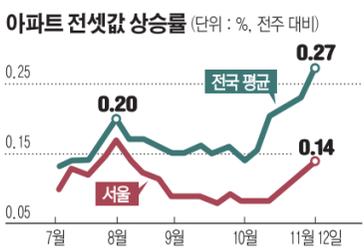
전셋값 급등에 갭투자 '고개'

전세난이 지속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사이 격차가 좁혀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2%로 전달(53.6%)보다 0.6% P 올랐다.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두 달 내리 오른 건 2016년 6월 이후 4년여만이다.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를 뺀 24곳에서 전세가율이 한 달 전보다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63.0)였고 중구(61.4)와 성북구(60.3)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는 69.9에서 70.7로, 인천은 71.9에서 77.5로 전세가율이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은 65.5다.

올 8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2년 이후 최저치였다. 그간 전셋값이 오르기 했지만 매매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이렇던 전세가율 추이가



반전됐다는 건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량 부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기 쉽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사이 차액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60%라면 집값의 4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갭투자를 차단하고자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전세가율 상승이 지속하면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번 주에 전국에서 65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총 12개 단지에서 6580가구(일반분양 4403가구)가 분양한다.

17일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아파

크캐슬'과 경기 여주시 천송동 '여주서해스카이팰리스', 18일 전북 남원시 광양읍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등이 공급된다.

총 10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1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동북한산스카이뷰'와 17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더퍼스트' 등 주요 단지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 진행 단지는 총 33곳이다. 16일 경기 고양시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라씨'와 18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4단지(국민임대)'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8곳이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와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자이 등이 20일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16 (월)	계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동북한산스카이뷰	11/18 (수)	계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6단지(국민임대) (~11/20)																																
					고양시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라씨 (~11/20)						상일동	고덕강일7단지(국민임대) (~11/20)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 (~11/20)							고덕강일9단지(국민임대) (~11/20)																															
					수원시 망포동 영동롯데캐슬엘라씨(1BL) (~11/24)							강동리엔파크11단지(행복주택) (~11/24)																															
					영등포구 영등포롯데캐슬엘라씨(2BL) (~11/24)							강동리엔파크14단지(행복주택) (~11/24)																															
					시흥시 거목동 군자서희스타힐스 (~11/19)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행복주택) (~11/24)																															
					정왕동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송파구 거여동 위례3BL(국민임대) (~11/20)																															
					안양시 박달동 안양리버시티르네 (~11/18)							양천구 신정동 신정동(행복주택) (~11/24)																															
					파주시 당하동 온정신도시제일풍경재그림퍼스트 (~11/19)							충량구 신내동 신내3 도시형생활주택 (~11/24)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서면비스타동원 (~11/18)							신내3지구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11/24)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센트럴캐슬퍼스트 (~11/18)	대구 수성구 만촌동 힐스테이트만촌엘퍼스트 (~11/19)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더비아벨라코트(민간임대) (~11/21)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왕원S1(영구임대) (~11/24)																																										
11/17 (화)	발표	경기	안산시	원서동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11/20)	11/19 (목)	발표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아파크캐슬(4단지) 1순위(당해지역)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안양동	반정아아파크캐슬(5단지) 1순위(당해지역)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안양시 안양동 안양광신프로그레스리버뷰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푸르지오더센트럴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더센트럴로데시앙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오른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경기 용인시 고령동 용인고림지구3차양우내내아더센트럴 1순위(기타지역)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경기 용인시 고령동 용인고림지구3차양우내내아더센트럴 2순위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리브W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경기 고양시 지족동 고양지족S1(영구임대)																															
안산시 평택시 포승읍 평택테크 경기행복주택 (~11/20)	경기 광주 서구 쌍촌동 상우모아미래도레이크																																										
11/18 (수)	계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7단지(국민임대) (~11/20)	11/20 (금)	발표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8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9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0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1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2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3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4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5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6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고덕강일17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8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19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0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1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2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3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4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5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6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7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8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29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0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1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2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3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4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5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6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7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8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39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0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1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2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3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4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5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6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아울림리버뷰 (~11/25)		
고덕강일47단지(국민임대) (~11/20)	11/22 (일)	계약	과천시	갈현동																																							

‘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 미지급 공사비 40억 받는다

대법 “간접 공사비 부분 재심리”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했던 SK건설 컨소시엄이 미지급된 공사비 40억여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간접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홍수피해 방지,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해 주운수로,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경인운하 사업을 시행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2009년 6월 김포터

미널, 한강갑문 공사 등 6공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착수했다. 총공사금액은 약 2700억 원으로 예정공사기간은 2011년 12월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변경돼 2012년 12월 완공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사기간 연장 추가 간접 공사비 등 9개 항목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14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괄입찰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사대금 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SK건설 등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9개 중 4개 항목만 인정해 수자원공사에 3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복측 부두 갑문구간 배수시설 공사비 약 11억 원 등을 추가로 인정해 수자원공사가 SK건설 등에 총 4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당시 계약 변경·연장 과정에서 3차 계약상 준공기한은 2011년 12월 31일이고, 4차 계약상 착공일은 2012년 7월 9일로 약 7개월간 공백기가 있었다.

1·2심은 이 기간에도 SK건설 컨소시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공정회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라며 “계약상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

서울에 올 가을 들어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여의도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중국·북한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정체로 축적돼 18일 이후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낮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정위 내부고발인〉

“갑질 논란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법원 “조사 불응·신고 직원 고소… 인사조치 필요성 충분”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직무배제 상태에 있어서 굳이 직위를 해제할 필요는 없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위해 ‘갑질 신고’ 자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

기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 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유 전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김종용 기자 deep@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 대법 “위계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의사를 제약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B 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동법상 성매매)에 대해 군사법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기영 기자 pgy@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남남**
www.nanam.net nanam



‘에너지 전환’ 정부차원 넘어 지자체·기업·주민 주도 확산

파리협정에 따른 포스트 2020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세계 주요국은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방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국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에너지전환이 중앙 정부 차원을 넘어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 역시 에너지전환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정보기술(IT)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실제 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 사례를 소개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레저러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주민 참여...재생에너지 상생 모델

레저러는 군사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65MW(메가와트) 규모의 두루미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50회가 넘는 소통을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 단 기보상이 아닌 장기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

발전소를 분양하는 대신 20년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였고, 단발성 지원금 지급이 아닌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마을회관 유휴공간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숙박시설 ‘뚝뚝한 헤리네’를 구축, 주민

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했다.

또 53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자립을 지원했으며 지분 및 대출 채권 펀드 등으로 발전소 투자 주민은 20년간 월 10만~15만 원을 받게 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2018년 10월부터 14명의 지역주민이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단계 발전소까지 완료될 경우 약 858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발생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해중 ‘햇빛지도’ 개발

태양광 발전정보, 웹서비스로 제공

해중은 태양광 발전을 IT 기술과 접목해 실시간으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플랫폼인 ‘햇빛지도’를 개발, 이를 통해 2만7000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했다.

햇빛지도는 최대 72시간 후의 태양광 발전량과 판매 비용을 알려줄 뿐 아니라 현재의 발전상태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소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량 운영을 위한 실시간 발전 예측 시스템은 자체 시공한 전국 330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와 실시간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를 통해 학습

(머신러닝)된 알고리즘, 수치 예보모델을 활용해 정확도가 높다. 일사량이나 구름의 움직임 등 실시간 기상 상황을 인공위성으로 파악해 짧게는 1시간부터 최대 72시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고객들도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관련 정보를 웹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해중의 솔루션을 채용한 경기도 안성시 에스엘 태양광 발전소.

안산시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시민과 에너지 생산·절약 운동 전개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생산·절약 운동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안산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9만4887세대가 참여했으며, 4053명에 달하는 청소년 에너지 서포터즈를 양성해 에너지전환의 미래 지속성을 뒷받침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

부에 설치해 상하수도 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현재 안산시민햇빛발전소는 23개소, 설비용량은 2592kW에 달한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충전소를 배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1호 발전소 ‘안산정수장 침전지’.

서울에너지공사 ‘가상발전소 조성’

숨어있는 에너지로 수익모델 창출

서울에너지공사는 작은 에너지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절약하고 모으면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 사업으로 전력 피크 시간대의 전력 감축에 기여해 25개 자치구와 공동주택,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7.7MW 규모의 수요반응자원을 확보했다.

공사는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형 규모의 수요반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현재 민간

협업체를 구성해 100MW 서울시 민가상발전소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에너지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9.5MW급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하는 발전설비를 도입했으며, 사회복지 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현장.

화성시 ‘그린뉴딜 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전환

화성시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 시민 인식 전환 교육을 진행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2018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화성시는 기후 위기와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대전환을 일으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린뉴딜을 선택했다.

화성시의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화성시민의 지역 상황

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 증진이라는 3대 핵심 목표 아래 화성시민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화성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43만 톤 감축,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MW 생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하이넷 화성동탄 수소충전소.

한국남동발전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업 병행 가능...농가소득에 기여

한국남동발전은 국토효율 높은 재생에너지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영농형태양광 확대에 기여했다.

남동발전은 2017년부터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체계적인 도입·확산을 위해 대학·중소기업 등과 실증연구를 추진했다.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약 6611㎡ 부지에 100k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벼농사와 태양광 전기 생산을 접목했다. 과거 국내 영농형태양광은 주로 음지에서 자라는 작물 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사업은 대표적인 양지 식물인 벼 생육과 함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동발전은 일반 농지에서 거둘 수 있는 벼 평균 수확량의 95% 이상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태양광 발전 이용률 또한 설계기준 값인 15%를 웃도는 18%를 기록했다.

남동발전은 국내 최초 영농형 태양광 운영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통합 센터다. 또 IoT 기반의 영농형 빅데이터를 구축, 발전량을 예측·관리해 설비 운영현황의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했다.



작물 수확과 전력 생산이 모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전주 에너지전환 시민포럼

에너지자립 문화도시로 조성 계획

전주지역 11개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회, 전주 시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주를 에너지자립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2016년부터 총 31차의 정기포럼을 운영하며 에너지 사용 주체인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시민들의 에너지전환 인식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전주시의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민간 협력형 ‘전주에너지센터’를 개관하기도 했다.

또 건물의 에너지 효율 확대를 위해 실내조명을 실링 팬이나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할 경우 소요 비용의 6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3회째를 맞은 전주 에너지전환 박람회 ‘나는 뽁뽁이다’는 매년 시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DIY 실습, LED 스탠드 만들기, 실내정원 만들기, 전기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주 에너지전환박람회 ‘나는 뽁뽁이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농사 구축...안정적 수익 창출

시민이 모여 만든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직접 자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총 10기의 태양광 발전소(1007kW)를 준공했으며 평균 3%대의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조합의 강점은 꾸준한 교육 활동으로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전환 교육’을 실시해 해마다 전국 단위 시민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쉽게 체험할 수 있게 LED 스탠드 조명 만들기, 태양광 랜턴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마련했다.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에너지 취약국가인 라오스, 말라위 등에 교육 활동으로 만든 태양광 랜턴을 기부하고 있으며 라오스 에너지 빈곤 마을에 햇빛 발전기와 전등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조합원들의 출자배당 기부금과 조합 사업 수익의 일정 금액을 기부해 전기세를 대신 선납 지원하는 활동도 추진했다.



산두레햇빛발전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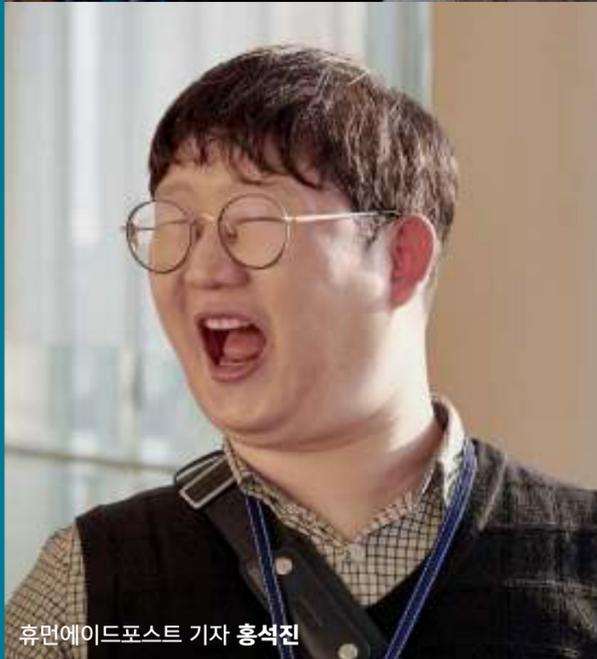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부동산 대면시장과 프롭테크는 대체재 아닌 보완재”

〈ICT 기술을 융합한 부동산 산업〉

토지·건물 정보 서비스 1위...김범진 벨류맵 대표

올해 7억건 데이터 분석...AI 이용 '정보 비대칭성' 해소 매수·매도자 의사결정 돕는 효율적 프롭테크 도구 될 것

“벨류맵은 지난해 3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했고 올해는 7억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겁니다. 이 데이터로 그동안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가치 추정과 개발이익 분석 등 계량분석을 거쳐 상용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벨류맵'은 내놓는 서비스마다 '국내 최초'다. 김범진(사진) 벨류맵 대표는 국내 최초로 2017년부터 전국 토지·건물 실거래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벨류맵은 창업 이후 혁신을 거듭해 토지·건물 정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벨류맵은 전통적 대면 산업인 부동산 시장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정보시장의 제일 큰 교두보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투데이는 12일 김 대표를 만나 벨류맵과 한국 프롭테크(ICT 기술을 융합한 부동산 산업)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대표는 앞으로 부동산 빅데이터 분야는 양이 아닌 질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빅데이터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며 “여전히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정보 부족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는 단순 거래 정보나 가격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미리 읽는 '예측'의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토지나 건물의 단순한 양적 정보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소비하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 데이터, 즉 행동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통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벨류맵은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흐름에 맞춰 올해 사용자 데이터 분석량을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인 7억 건으로 늘렸다. 수집



한 데이터는 다양한 계량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치 분석과 잠재매물 발굴, 투자 유망 지역 분석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벨류맵을 창업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사로 일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하던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안타까워했다.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알지 못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탐색 비용 소모가 많은 점을 눈여겨

김 대표는 “벨류맵을 통해 토지나 건물 매매시장에서 누구나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새 관점을 제시했다”며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점도 바꿨는데 '실중개 사례'로 단순히 어떤 매물을 갖고 있느냐 수준에서 중개사가 어떤 물건을 중개해왔고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벨류맵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설계와 공법리스크 분석, 실측 건물 평면도 정보, 3D VR(가상현실) 활용 가상브리핑 서비스 등 고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새 서비스로 벨류맵은 기존의 오프라인 상담 유도식 매물 정보에서 벗어나 매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 부동산 시장과 프롭테크 기술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롭테크 기술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순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 결정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위주의 기존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과 프롭테크 기술의 조화로 새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벨류맵은 효율적인 프롭테크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머스크, 나 걸렸나...

“경도 코로나 감염된 듯, 감기 비슷”
전날 4회 검진 양성 2회·음성 2회

일론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가벼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기관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나는 경도의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증상은 가벼운 감기 같은데, 코로나19가 감기의 일종이니 놀랍진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한 트위터 유저의 질문에 “약간의 입다툼이 있다”며 “보통 감기와 같은 증상이지만,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목이 더 아프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기약을 먹으면 기분이 끝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전날 같은 의료진으로부터 동일한 진단키트로 총 4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네 차례의 검사 가운데 두 번은 양성 반응이, 나머지 두 번은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트위터에 “같은 날, 같은 진단키트로, 같은 간호사에게 받은 결과다”며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RCR)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비판하는 쪽이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봉쇄령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사실상의 가택 연금”, “파시스트적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3월에는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해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포스코, 1만시간 '봉사왕'에 인증패



최정우(뒷줄 가운데) 포스코 회장이 13일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직원 배우자와 직원 가족, 3000시간 이상 봉사한 직원들을 초청해 인증패와 기념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직원과 가족을 '포스코 1만 시간 애너스클럽'에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美 연방하원 입성 한국계 총 4명



영 김, 2년 만에 현역의원에 설욕 '순자·은주·영옥' 女초선 3인에 앤디 김은 뉴저지주서 재선 성공

한국계 영 김(김영옥·57) 미국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김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4명이 미 연방하원에 진출하게 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뉴욕타임스(NYT) 개표 집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50.6% 득표율을 기록해 시스네로스 의원을 1.2%포인트(4000여표) 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계 연방의원은 4명이 됐다. 앞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한국 이름 '순자'로 알려진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주) 후보와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주) 후보도 당선됐다.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김 당선인은 1975년 가족들과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다. 괌에서 중학교,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또 김 당선인은 하원 외교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의 아시아 정책보좌관으로 20여년간 활동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자로서 각고의 노력과 결단을 통해 아메리칸드림을 이뤘다”며 “지금 워싱턴D.C.에는 당파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초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카이스트, 장애인 보행 로봇 대회서 금·동메달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 협업 개발한 '워크온슈트4' 착용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장애인 보행 도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팀 엔젤로봇틱스가 '사이배슬론(Cybethlon) 2020'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배슬론은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겨루는 국제대회로, 2016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착용형 외골격 로봇 종목에 출전한 김병욱(왼쪽 사진) 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컵 찻기, 장애물 지그재그 통과하기, 협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옆경사로 통과, 경사로 및 문 통과하기 등 6개의 임무를 3분 47초 만에 수행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이주현(오른쪽) 선수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5분 51초를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은 6개의 미션을 4분 40초 동안 수행한 스위스 팀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착용한 워크온



슈트4는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의 연구팀을 중심으로 엔젤로봇틱스, 세브란스 재활병원, 영남대학교, 에스텍스, 재활공학연구소 등이 협업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공 교수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석권한 것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수들의 노력과 더불어 워크온슈트4에 적용된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아이언맨이 실제로 개발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홍보소통과장 박한서
-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법정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상황총괄대응과장 이창훈 △공간정보제도과장 유승경 △지적재조사기획단사업총괄과장 유상철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양철호 △감사담당관 최영준 △법인세과장 양동구 △조사기획과장 윤승출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전진 △기획재정담당관실

- 강정훈 △정보보호팀 전병오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심사1담당관실 최홍길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성한 △세정홍보과 최병기 △전자세원과 손진호 △법인세과 민강 △자본거래관리과 김태훈 △조사기획과 이순민 △국제조사과 김항로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고만수 △조사1국 조사2과 최미숙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원 △운영지원과 이석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형철 △운영지원과 우병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윤재원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성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승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

- 과장 김종진 △조사2국 조사3과 김선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정하용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김학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연구부장 박광서 △경제전망연구부 데이터·통계분석실장 최석우
- ◆한화생명 △상무보 승진 △김국진 △이경섭 △이원근 △최재덕
- ◆한화손해보험 △상무 승진 △우용호 △이재우 △임동일 △상무보 승진 △남준우 △서익준 △손두호 △신정훈 △이명수 △전두성 △정주교
- ◆한화투자증권 △상무 승진 △김민수 △상무보 승진 △성기순 손종민 윤석훈
- ◆동아프린테크 △총정로 공장장 조권희 △산안 공장장 마승중

부음

- ▲이봉이 씨 별세,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장모상 = 15일, 경남 거제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055-636-3112
- ▲신태군 씨 별세, 신은미·은정(국민일보 기자)·은경(세원셀렉트 차장)·등현(세이브에너지 근무) 씨 부친상, 송경민·최현철(경향신문사 차장)·송승건(ASML 차장) 씨 장인상 = 15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31-780-6161
- ▲성기운(성결대 교수) 씨 별세, 이순영(김포 은여울중 교사) 씨 남편상, 성문현(현대엔지니어링 사원)·재현(극작가) 씨 부친상 = 1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

- 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30분, 02-2072-2016
- ▲강상심 씨 별세, 변판수·문수(아시아신탁 전무)·경수 씨 모친상 = 1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02-6986-4453
- ▲김정(전 ㈜한화켈러리아대표이사·전 대한사격연맹회장) 씨 별세, 김경진 씨 남편상, 김영주·선주 씨 부친상 = 13일, 서울여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2-3779-1526
- ▲곽윤자 씨 별세, 이영상(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전문교수)·태상 씨 모친상, 민호기(백터컴 부회장) 씨 장모상, 이민영(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씨 조모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16일 오전 10시, 02-3010-20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고문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상대를 대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여 통상제재를 자제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히 미국의 동맹국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원칙과 자유무역을 천명함으로써 보복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11월 3일 화요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로 나타난 선거판세가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역전되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득표(7700만 표)를 기록하면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는 약 500만 표로 당선에 확실시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요구와 재검표 소송 제기로 당선 선언이 늦어지면서 인수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현 상태에서 군인 가족 등 부재자 투표의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워낙 큰 표차라 당선자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취할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예측가능한 것은 오로지 그의

예측불가능성뿐”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난감했던 경험을 상기해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대선 공약을 참고하여 바이든의 정책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 둘째 다자협력체제의 복원, 그리고 친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의 실현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메르켈 총리,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정상과 통화할 때 제일성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한다.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등 동맹과 협력하여 중국 및 러시아에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트럼프 시대에 극명히 드러난 중국-러시아-북한연합을 동맹을 복원하여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동맹의 강조는 그간의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다자체제의 복원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린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에 불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여 성장시킨 기구라고 비난하며 상소 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해왔던 미국,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와 종합통상법 301조의 일방주의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에 통상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다자체제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무역으로 경제를 일으켜온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하여 복원하는가이다. 중국을 향한 ‘보조금 규정’의 강화는 조선산업 등 이 조항을 근거로 피소받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이다.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친환경 인프라 등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다. 취임 후 바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CAF)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연합(EU)이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와 함께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당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노동 및 인권의 ‘가치로서의 중시’는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때와 같이 강화된 환경 및 노동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상대를 대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여 통상제재를 자제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히 미국의 동맹국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원칙과 자유무역을 천명함으로써 보복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같은 경제동맹에의 참여를 압박해올 때, 중국에게는 15일 타결을 선언한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줄 필요가 있다.

대륙을 호령한 고구려, 개마무사의 비밀

〈鎧馬武士〉



이종호 과학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한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해 강한 매력을 갖는 것은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우리 민족으로 구성된 강한 군대로 마음껏 뛰어나다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가 중국을 호령하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고구려인들의 강인한 개척정신에도 있지만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 비추어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주력 부대는 ‘개마무사(鎧馬武士)’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마’란 기병이 타는 말에 갑옷을 입힌 것을 말하며 개마에 탄 중무장한 기병을 ‘개마무사’라고 부른다. 기병이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말이 부상당한다면 전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말의 안전은 기병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구려 기병은 말까지 철갑옷으로 무장시켰다. 개마무사의 주무기는 창이다. 이 창은 보병의 창보다 길고 무겁다. 기병용 창을 삭(槊)이라 한다. 중국식 삭은 보통 4m 정도인 데 반하여 고구려군의 삭은

평균길이 5.4m에 무게는 6~9kg이었다.

개마무사가 밀집대형 혹은 췌기췌(八)대형으로 5.4m가 넘는 긴 창을 어깨와 겨드랑이에 밀착시키고, 말과 기사의 갑옷과 체중에 달려오는 탄력까지 모두 합하여 적에게 부딪치면 보병으로 구성된 적군의 대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보병 등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전세를 장악하여 승패를 결정지었다.

242년 고구려의 동천왕은 철기병, 즉 개마무사 5000명을 동원하여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서양에서 개마는 13세기에야 나타난다. 1221년 페르시아의 우르겐지에서 몽고족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다랑의 개마가 출현했다. 이로 미루어 고구려의 개마가 얼마나 빠른 시기에 도입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개마무사의 철갑옷은 철갑과 판갑으로 나뉘는데 고구려의 철갑옷과 철모는 대부분 물고기 비늘처럼 얇은 철판을 네모나고 잘게 잘라 가죽으로 이어 제작한 갑(札甲) 형태다. 말과 사람을 위한 갑옷을 철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개마를 만들 수 있는 철 기술과 아울러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구려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철기가 발달한 것은 고구려 영토에서 질 좋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데다 고조선으로부터 뛰어난 제련기술을 이어받은 뒤에 그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철기 사용은 기원전 1100년경이지만 기원전 7세기인 춘추전국시대에 비로소 주철의 주조에 성공했는데, 전국시대의 유적지 가운데 철기가 출토된 20여 곳 대부분이 고조선 영역이다. 이들 유물이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인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강철을 주조하는 첨단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민족이 생산한 강철은 고온의 용광로에서 직접 얻은 질 좋은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었다. 그 연대로 무려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의 용융점이 1539도이므로 제련로 안의 온도를 1500도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런데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강철을 분석한 학자들은 고조선 장인들이 제련로 안의 온도를 적어도 1400도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철을 14~16시간 정도 녹여냄으로써 질 좋은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고조선 장인들의 완벽한 제련로 설계, 연료와 탄소 공급원으로서의 숯의 사용, 효율적인 송풍관 등의 덕분이다.

고구려 동천왕이 개마무사 50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철의 양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다. 개마무사 1인당 말 갑옷 최소한 40kg, 장병의 갑옷 무게 20kg, 기타 장비 10kg을 휴대한다고 해도 최소한 70kg의 철이 소요된다. 5000명을 무장시키려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최소 350톤의 철이 필요하며 예비량을 가정한다면 500여 톤이 있어야 한다. 현대의 제철기술로는 500여 톤이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약 1800년 전에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실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윌리엄 골드먼 명언 “삶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죽음보다는 공평하다.”

미국의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그는 ‘내일을 향해 쏴라’ ‘머나먼 다리’ ‘투명 인간의 사랑’ ‘미저리’ ‘채플린’ ‘매버릭’ ‘고스트 앤 다크니스’ ‘대통령의 음모’ 등 수십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는 오늘날 세상을 뒀다. 1931~2018.

☆ 고사성어 / 만사휴의(萬事休矣) 모든 일이 끝났다는 말.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 원전은 송사(宋史) 형남고씨세가(荊南高氏世嫁). 당(唐)나라가 망한 후 혼란기에 고계흥(高季興)이 세운 나라가 형남(荊南)이다. 그는 아들 종회(從誨)와 손자 보옥(保勳)을 두었다. 보옥은 안하무인에다 음란하기까지 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萬事休矣]”라며 탄식했다. 예견대로 그는 즉위하면서 기생들과 군사들을 풀어 혼음을 시키며 보고 즐겨 백성의 원성을 샀다.

☆ 시사상식 / DAS 뉴욕 경찰청이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로 개발해 설치한 최첨단 범죄감시 시스템. Domain Awareness System의 머리글자를 따다. 경찰은 CCTV, 다리·터널·순찰차 등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 911 신고 전화, 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해 범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용의자나 차량을 추적한다.

☆ 우리말 유래 / 게거품 곱둑거나 흥분해서 내뿜는 침. 게(蟹)가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입에서 내는 거품에 빗댄 말이다.

☆ 유머 / 선생님의 거짓말 아이들이 길 잃은 강아지를 놓고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갖기로 내기를 걸었다. 지나던 선생님이 “거짓말은 아주 나쁜 거야. 나는 너희만 했을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단다”라고 했다. 모두들 말이 없자 한 아이가 나서며 제의했다. “애들아, 그냥 선생님께 드리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대통령 말씀은 정부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 생각한다. 전국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온 말이다. 돌려 말했지만 결국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3년여간 문 정부의 규제 질주가 남긴 건 집값 폭등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올해 5월 서울 집값은 45.5%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주 내놓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3년간

58% 치솟았다. 스무 번 넘게 나온 대책이 모두 헛물만 켜 셈이다. 올해 초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막연하고 황당한 공수표였다.

현 정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뒤들렸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매수를 미루던 사람들은

점 찍었던 집들이 두 배 가까이 치솟는 것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이 전세시장마저 흔들었다. 2개월이면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던 흥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상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정부는 자신들이 속전속결로 시행한 임대차법의 후폭풍을



김동호 부동산부/sorahosi@

곧 나올 전세대책, 이번에도 헛물?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중훈

논설실 (02)799-2669 | 정치경제부 (02)799-2663 | 사회경제부 (02)799-2612 |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 금융부 (02)799-2665 | 부동산부 (02)799-2637 |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 뉴스레부 (02)799-2664 | 사진팀 (02)799-6745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배달 (02)799-2684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을 위해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죽음'이다. 일부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삶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다. 혈액 순환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뇌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산소 결핍으로 세포들이 신진대사 기능을 못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발생하고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도 생산을 멈춘다. 그리고 육체는 부패하게 된다.

육체와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원론', 육체만 있을 뿐이라는 '일원론', 영혼만 있고 나머지 물리적 존재는 일종의 환상이라는 '유심론' 등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이 있다. 이원론자와 유심론자는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영혼은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우리의 믿음이지 실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이고 체험 불가능하며 타협의 여지도 없다. 역설적으로 죽어도 피하고 싶지만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평등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삶이 소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지만, 권력의 죽음을 겪는 이들은 많다. 최고 통치자의 권좌에 한 번 오른 후 내

데스크칼럼

박성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려오면 절대 다시 그 옥좌에 앉을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부활이 불가능한 데다 심지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권력의 비참한 죽음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육체의 죽음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지만, 권력의 죽음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2022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육신의 죽음에 비교해 보면 내년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현 권력 조직의 혈관에 도는 피가 탁해지고 순환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월성 1호기 폐쇄과정의 불법성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다면 청와대 브레인들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친문세력은 마지막 남은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겠지만 죽음의 계책을 느끼게 할 뿐 조직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

다. 선거의 승패를 떠나 권력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현실을 담담히 수용한다면 말이다.

권력의 성공적인 죽음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행'에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우선 권좌의 주변에 물려든 정치인, 관료들의 욕망을 지금부터 냉철하게 가려야 한다. 개인적인 부와 지위를 극대화하려는 욕심을 놓이지 않은 정의감과 이념으로 포장한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남은 마지막 여행을 망치는 주범들이다.

둘째, 권력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들을 중용해야 한다. 세익스피어는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고 통치자의 손을 잡고 구불구불한 뉘비알을 거꺼이 내려올 때 배고 있는 참모가 절실하다.

셋째, 치유의 정치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들과 동행해야 한다. 지난 3년여 동안 한국사회는 '샤덴프รอย데(Schadenfreude)'에 취해 있었다. 현 정부는 세계와 정치, 법조 등 많은 부문에서 갈라치기를 통해 반대편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하였다. 남은 임기는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편 가르기는 권력의 비참한 죽음을 예고한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죽음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대통령은 아직 없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vicman1203@

시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실한 구조조정 관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30.77%)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정상화를 위한 산은의 대안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도 곧 아시아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HDC현산이 지난 9월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한 직후 2400억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이전에도 수출입은행과 함께 3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산은 등은 대한항공에도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개 대형항공사에 정부가 계속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게 산은의 판단이다.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항공사 간 M&A 사례는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글로벌 탑10의 거대 항공사로 올라선다.

그럼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

보다 막대한 현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의 부채는 12조 원, 부채비율은 2300%에 이른다. 대한항공 또한 부채규모 23조 원, 부채비율 1100% 수준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항공산업 위기의 장기화로 동반부실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메워야 할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

독과점 논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변수다. 다만 위기상황에서 아시아나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경우 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거 외환위기 때인 1999년에도 예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했다. 현실적으로는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 인수를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만으로 최악의 불행인 항공산업의 정상화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뱃머리에 올라 더 이상 회생이 힘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또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다. 현세 투입을 줄이기 위해 확실한 자구 노력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두 회사 노조들이 인수합병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인수시키려는 정부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조 조정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실행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관건이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아시아나와 한진해운의 엇갈린 운명

강한 어조로 비판한 장관은 없었다. 문 장관이 해수부 장관으로 오기 전 항만·해운 분야 전문가로서 한진해운 파산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발언이다.

문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외국선사들이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대상선도 없어지길 바랐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현대상선마저 없어지면 한국 수출입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운시장을 외국선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했을 터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전 위상은 대단했다.

문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선박량은 105만TEU에서 46만TEU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도 11%에서 3%대까지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과 금융계 등의 반대에도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에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 20척 발주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박량은 현재 77만TEU까지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110만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HMM은 선박이 부족한 미주노선에 4차례 긴급 투입했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치로 보면 올해 9월 한국발 미주항 물동량은 7만6052TEU였고 애초 HMM 선적량은 1만2778TEU에 불과했지만 1척을 추가 투입해 총 1만6938TEU를 처리했다. 10월에는 2척을 투입해 2만4975TEU까지 늘렸다.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더 비싼 운임을 내고 외국선사를 이용하거나 수출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진해운 파산이 새삼 아쉬운 이유다. soqood@

미리 보는 한주 코로나 2차 확산, 3분기 가계 살림은

이번 주에는 국민 살림살이 행편을 짐작할 수 있는 3분기 기준 가계 지표가 공개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득·지출을 포함해 분배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민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개괄한 주택소유통계와 우리나라 대외 채무 상황 등이 반영된 국제투자대조표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17일(화) '2019년도 주택소유통계'를 내놓는다. 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자료 등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통계로 전체 주택 수, 주택 보유 가구 수 및 무주택 가구 수, 주택 보유 가구의 자산가액 격차, 다주택자 현황·증가율 등이 담긴다. 2018년엔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9억7700만 원인 반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2600만 원으로 37.6배 격차를 기록했다. 이어 19일(목)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가계동향은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일정 기간 나눠 살펴보는 지표다. 3분기의 경우 긴 장마와 집중호우, 코로나19 2차 확산이 진행됐던 시기다.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9% 반등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2.5단계까지 격상돼 국민 생활에도 그만큼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조사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9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공개한다. 앞서 6월 말 기준 통계에서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37.6%)과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30.7%)이 3월 말보다 모두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외채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3분기에도 이런 외채 건전성이 유지됐는지 주목된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반가워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더 신경 쓰이는 아기 빨래
초보 엄마, 초보 아빠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랑데시^{AI}가 다 맞춰드릴게요

새로운 시작 시^{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AI}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AI}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 톱큰혜택 2020.11.1 - 2020.11.30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동사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상당 혜택)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AI})은 울인원 컨트를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블랙(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